

‘사건의 지평선’에 선 韓경제… ‘회복탄력성’ 키워야

전환기 대한민국 **위기 넘어 미래로**

5%대 고물가, 美 금리인상 등 여파
올해 '1%대 저성장' 본격화 예고
불황 늪 탈피 위해 회복힘 길러야

많은 것을 잃었던 한 해를 떠나보내고, 계묘년 새 해를 맞았다. 한국 경제가 1%대 저성장 늪에서 허우적될 것이란 우려 속에도 '위기를 넘어 재도약할 것'이란 기대가 스며든다. 가수 윤하의 노래 '사건의 지평선'이 지난 연말부터 역주행하고 있다. '사건의 지평선'은 블랙홀의 경계를 뜻한다. 일반상대성이론에서 말하는 그 너머의 관찰자와 상호작용할 수 없는 시공간 경계면이다. 한국 경제가 사건의 지평선으로 다가고 있다. 어찌할 수 없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끌려가다 블랙홀의 경계면에 들어서면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어둠에 갇힐 수 있다. 지난 반세기동안 이뤄왔던 성장의 결실은 잊어야 한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 중심의 구조도 탈피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찾아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신보호무역주의에 대비, 규제를 혁파하고 연금·노동·교육·공공 등 4대 구조개혁에 매진해야 할 때다. 메트로경제는 2023 '계묘년'을 맞아 한국 경제의 재도약, '회복탄력성'을 갖추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사건의 지평선'으로 풀어봤다.

〈편집자 주〉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

작년 11월 21일, 서울 홍릉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주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 우리나라 경제
를 이끌었던 부총리·장관 등 역대 수장
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그 자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0년간 대한민국은 ‘쓰

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어나는 것'과 같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면서도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눈부
지게 성장한 우리 경제는 이제 과거가
됐다.

올해 우리 경제는 1%대 저성장(뉴노멀) 시기로 진입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을 전망치를 기존보다 0.9%포인트 내린 1.6%로 제시했다. 정책 수단을 갖고 있는 정부로서는 성장을 전망치를 올려 잡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1%대 전망치는 그만큼 정부가 올해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1%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한 해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0.7%),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0.8%), IMF 외환위기였던 1998년(-5.1%), 2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1.6%) 등 단 네 차례 뿐이다.

올해 경제 상황도 위기라 칭할만큼
녹록치 않다.

5%대 고물가에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상으로 올해부터 경기 둔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 심화 속에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과 소득 양극화, 고용 악화, 수출 약세 등 악재가 줄지어 대기하고 있어서다.

그래서, 역대 경제 수장들은 지난 60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구조 개편에 따른 새로운 국가 미래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2면에 계속〉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계묘년, 희망찬 도약 날개

계묘년, 희망찬 도약 날개 '2023 계묘년(癸卯年)'을 밝히는 동이 났다. 그 어떤 때보다 '경기침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럼에도 저 멀리 비행기 한 대는 여명을 향해 세차게 비상한다. '인간이 하늘을 날 거라'는 말을 비웃던 이들을 뒤로 한 채, 포기하지 않고 하늘 길을 개척한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새해 첫날, 주어진 삶의 몫을 해내기 위해 저마다의 자리에서 몸을 일으킨다. 우리에게 일상도, 경제도 올 한해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도약하기를 바란다. /손진영 기자 son@metroseoul.co.kr

/손진영 기자 son@metroseoul.co.kr

“3대 개혁 속도… 노동개혁 통해 성장 견인”

尹 대통령 신년사

“복합의 위기, 수출로 돌파해야
우주항공 등 신사업 발굴·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 새해를 맞아 복합위기를 수출 등 경제 활성화로 극복하고,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을 통해 위대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년사를 통해 “수출과 미래 전략기술
등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돌과해야 한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해외수주 500억불 프로젝트’를 기동함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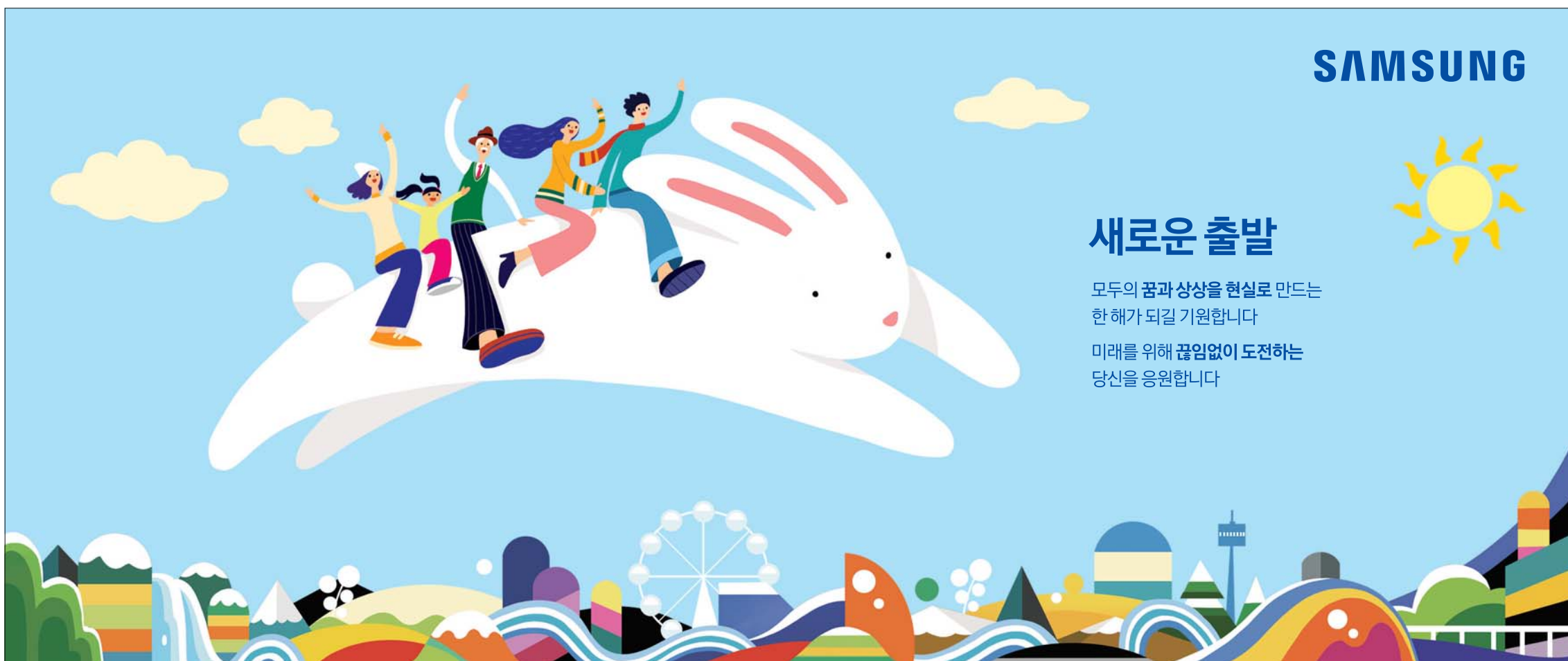
인프라 건설·원전·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원 확대 등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고,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와 지원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이뤄지도록 행한다.

〈2면에 계속〉

〈2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국민 ‘능력있는 정치’ 명령… 미래 먹거리 준비에 온 힘”

정치권 신년사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국민 기 살리고 성장하는 해 만들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 삶 지키고, 국가 미래 개척”
이정미 정의당 대표
“경제적 고통, 주체자들과 나눌것”



김진표 국회의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새해를 맞아 정치권에서 2023년 대한민국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보고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입을 모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신년사에서 “국민은 여·야·정이 힘을 모아 당면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 대비해줄길 갈망하고 있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능력 있는 정치’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경제·민생 위기 대비와 함께 미래 먹거리 준비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신년사에서 김진표 의장은 개헌

과 함께 승자 독식의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한 정치 관련 법률 정비도 약속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계묘년 올해를 ‘국민 기를 살리고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해’로 만들겠다. 철저한 준비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치가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흡족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위원장은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부의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어렵게 출발한 점을 언급한 뒤 “(그동안)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달려왔지만, 국민의 기대치에는 못 미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국민의 살림살이를 빈틈없이 챙겨서 ‘믿고 맡겨주니 정말 잘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년사에서 헌법 1조의 ‘국민주권’ 정신을 강

조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2022년 마지막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생경제가 올해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며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있는 검찰정권의 야당파괴, 정치보복 폭주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해법도 없다. 국민께서 힘겹게 쌓아올리고 다져온 민생, 민주주의, 평화의 토대가 사방에서 무

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의 역할을 강조한 이재명 대표는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치의 본령을 회복해야 한다”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권력을 정권의 사적 욕망을 위해 악용하는 잘못을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진보 정당들은 경제와 민생 위기가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올해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023년을 맞아 “올 한해 마주할 더 큰 도전 앞에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외롭고 고단한 시민들 곁에 힘이 되는 정의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정미 대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민 경제는 결코 녹록치 않다. 더 이상 서민들만 고통을 겪어지고 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제적 고통을 경제 주체들이 함께 골고루 나누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1면 ‘3대개혁 속도’서 계속

“가계·기업부채, 경제 불안요인 되지않게 지원”

금융권 신년사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기한연장 준비
신종사기 등 금융범죄 척결에 온힘
물가안정 중점 통화정책 지속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우리경제가 녹록지 않은 만큼 가계·기업부채가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누적된 가계부채가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상환능력을 기반으로 분할상환을 확대하고 취약차주 채무조정프로그램을 보완·확대해나가겠다”며 “기업부채에서 촉발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실진단, 재무개선 및 재기지원 제도 보완 등과 더불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기한연장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가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수 있는 금융제도도 마련한다.

김 위원장은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대환대출프로그램을 개편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금융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추진해 금융사고를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민생안정을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신종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양극화의 해소를 위한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도 제고한다.

이 원장은 “취약계층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은행

권에 도입된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앱을 타 업권으로 확대하겠다”며 “대상자별 맞춤형 금융교육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 총재는 “금리인상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물가·경기·금융 안정 간 상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더욱 정교한 정책 조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흐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기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관계당국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책대응 방안을 조율해 나간다.

이 총재는 “지난해 시장불안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 감독당국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외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진취적인 자세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고등교육 권한 지역 이양 ‘공정기회’ 누리게 할 것”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사 법치주의’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과 직무 중심, 성과급제도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개혁과 관련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등을 언급하며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며 “연금제도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8시 새해 첫 공식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들에게 참배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경제정책 최우선 목표 중장기적 ‘불황극복’에 뒤야

» 1면 ‘사건의 지평선에 선’서 계속

경제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든 올해, 국가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에 주목하고 있다. 충격을 받기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힘을 뜻하는 회복탄력성은 우리 경제가 갈대처럼 유연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커스 브런너마이어 프린스턴대 교수는 “회복탄력성은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밝히는 북극성과 같은 지향점이다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브런너마이어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21년 최고 경제학 서적으로 선정한 ‘The Resilient Society(회복탄력사회)’의 저자다.

가수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에서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라고 썼다.

과거 60년 간 소중했던 성장의 결실이 하나, 둘 사라지면서 맞닥뜨린 변화와 구조조정은 두려움이 됐다. 무엇을 하고자하는 동력을 삼켜버릴 블랙홀의

경계에서 회복탄력성은 우리 경제를 구해낼 한줄기 빛이다.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올해 우리 경제가 수출과 내수의 동반 침체판 블랙홀에 빠지지 않으려면 경제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불황 극복’에 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L’자형 경기 추세, 즉 경기 침체가 오는 2024년까지 지속되는 비관적

시나리오도 염두에 뒤야 한다. 고물가·고금리에 대응한 단기적 대책보다 중장기적 불황에 대비한 규제개혁·구조개혁에 정책의 중점을 뒤야한다는 주문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서도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 대응(37%)과 함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32.6%), 노동개혁(23.2%)의 중요성을 짚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발목을 잡고 있는 집에 대한 미련부터 버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양극화에 박탈감 커진 韓... 규제개혁 통해 불황 늪 극복해야

경제 재도약 '해법'

올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줄인상
가계·기업부채 3600조원 육박

전문가들 “올 정책 최우선 목표는
물가안정→불황극복으로 옮겨야”

“세계적으로 공급사슬 재편 추진
규제개혁으로 역동성 확보 필요”

지난해 미국 시사주간지 'US뉴스&월드리포트'(U.S. News& World Report)는 한국의 국력(Power)을 세계 6위로 평가했다. 우리나라를 경제 10대 강국 중 하나로 꼽았다.

해외 시각과 달리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한국 경제의 미래는 암울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대 이상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5년 후 경제·산업·정치 등 한국의 위치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국민의 37.7%는 '보통', 19.9%는 '다소 열악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수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5.5%에 그쳤다. 상당수 국민들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당장, 올해부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른다. 고금리가 지속될 전망이다. 가계부터 기업까지 부채만 3600조원을 육박했다.

빛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부동산 등 자산 가격에 따른 소득 격차는 더 벌어져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KDI 조사에 따르면 국내 경제전문가 다수가 우리 경제·사회 발전 속에서 가장 미흡했던 부분으로 빈부격차 확대(40.5%)를 꼽았다.

고물가·고금리에 서민들 실질소득은 줄고, 주택담보대출 등 이자부담은 늘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란 고질적 병폐가 경제를 좀먹어 국가 동력이 식어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이 올해 경제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물가 안정'에서 '불황 극복'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지적한 이유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 심리의 급격한 냉각에 대응해 소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며 “건설업 불황에 대비해 주택 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전방 산업인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재도약, '회복탄력성' 해답
세계 6위 한국의 국력을 유지하고,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국가 '회복탄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회복탄력성을 거시 경제적으로 보면 충격 이전의 장기적 성장 추세로 복귀할 수 있는 총체적 역량을 말한다. 회복탄력성은 흔히 갈대에 비유한다. 갈대는 충격에 견디는 힘은 약하지만, 충격을 흡수해 본래 상태를 회복하는 데 탁월하다.

'The Resilient Society(회복탄력사회)'의 저자 마커스 브런너마이어 프린스턴대 교수에 따르면 회복탄력성이 없는 경제는 충격이 멈춘 후에도 그 상처가 이어져 충격 이전의 궤도로 돌아가지 않는다. 자칫 '장기 저성장'의 수렁

에 빠져들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회복탄력성이 있는 경제는 충격이 멈추면, 빠르게 상처를 치유하고 충격 이전의 궤도로 복귀한다.

실제 1993~2010년 발생한 175개국 212건의 경제위기 사례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자유와 제도적 신축성이 높은 나라일수록 상대적으로 위기의 충격을 적게 받았다. 그리고 회복 속도도 빨랐다.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가 회복탄력성을 갖추려면 작은 충격이나 실패로부터 대응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예컨대, 우리나라와 대만은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발생 때 국제 전염병 관련 국가 비상계획을 운영한 경험이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큰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회복탄력성은 창조적 파괴와 혁신의 과정을 통해 시스템을 새롭게 함으로써 작용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충격으로 인해 기존 시스템은 더 유지할 수 없으므로 창조적 파괴를 단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기존 시스템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혁신적인 대안으로 바꿔 회복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의 지정학적 판도가 불확실해지고, 세계 공급사슬의 재편이 추진됨에 따라 모든 국가가 공히 전략적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며 “회복탄력성은 규제개혁을 통한 한국 경제의 역동성 확보가 재도약을 위한 최선의 해답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세종=원송일 기자 won@metroseoul.co.kr

2023년 경제정책 방향 주요 내용

거시경제 안정관리

- 금융안정 및 중소기업·수출 지원 중심 정책 금융 확대 495 → 540조원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3주택 8% → 4%, 4주택(조정 지역 3주택)이상, 법인 12% → 6%
- 규제지역 다주택자 LTV 주담대 금지 → 주담대 허용 LTV 30%
- 한전·가스공사 적자 4년내 해소 → 요금 단계적 인상
- 채권 시장 수급 여건 개선 → 회사채·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 확대

민생경제 회복지원

-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버스, 전철 등 공공요금 인상요인 최소화
- 대중교통 신용카드 80% 소득공제 6개월 연장
- '빌라왕 사건' 구제 위한 법무부 법률지원TF 가동, 전세사기 특별단속
- 월세 세액공제(한도 750만원) 주택 기준 상향 3억→4억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 미래 먹거리 확보 '신성장 4.0' 프로젝트 가동
- 무역금융 규모 확대 351 → 360조원
- 투자증가분 공제율 신성장원천기술 3%, 국가전략기술 4% → 일괄 10%
- 노인 기초연금 월 30만8000원 → 32만2000원
- 장애인연금 월 38만8000원 → 40만2000원
- 채권 시장 수급 여건 개선 → 회사채·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 확대
- 폐업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 재기지원 종합 패키지 연계
-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추진(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미래대비 체질개선

-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
노동 근로 시간, 임금 체계 개편, 교육 대학 규제 개선
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 토대 국민연금 개혁안, 연금금 운용 개선 마련
- 지방재무 관리 강화 지방채 발행한도 외 차환채 한도 인정비율 축소
- 전기차 성능 따라 보조금 차등·배터리 안전 역량평가 도입

자료: 정부

/뉴시스 그래픽

반도체·해외건설·관광 등에 정부 총출동... 수출·수주 '드라이브'

무역금융 규모 260조 '역대최대'
연간 500억弗 민관합동패키지 지원

국가별 수요 분석 원전 세일즈 나서
新기술·일상·시장 신성장 4.0 추진

지난해에 이어 새해 무역수지 적자가 유력한 가운데, 정부가 새해 수출·수주를 총력 지원한다.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응해 국민 체감형 프로젝트를 추진, 국가 활력을 끌어올린다.

◆ 범정부 수출·수주 총력... 5대강국 도약

정부는 우선, 수출 5대강국이란 목표를 잡고,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범정부 수출·수주 드라이브를 가동한다.

올해 상반기 중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반도체 등 주력산업과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등 5대 분야 중심 수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반도체 등 주력산업 초격차를 실현하

고 민관의 원전수출 역량 결집에도 나선다. K콘텐츠 수출과 AI 기반 디지털 플랫폼도 구축한다.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260조원으로 확대하고, 중기 환변동 보험료를 30%포인트 확대 할인하거나 통화전환환원부대출을 공급하는 등 환변동·고금리·지정학불안 등 리스크에 맞춘 대응한다.

연간 500억달러 해외 인프라 수주와 방산수출 4대강국을 목표로 민관합동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사우디 네옴 신도시'(5000억달러), '인니 신수도 이전'(358억달러), '폴란드신공항'(74억달러) 등이 핵심 공략 대상이다.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법정 자본금 한도를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4배 상향하고, 인프라 대출채권 매각 대상을 해외 금융기관까지 확대하는 등 수주기업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원전은 국가별 수요를 분석해 범정부 세일즈외교에 나선다.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체코·폴란드 원전 수주에 집중키로 했다. 체코는 입찰제안서 제출 후속조치를 폴란드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신성장 4.0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 추진

1 신기술 미래 분야 개척	① 미래형 모빌리티 2030년까지 C-ITS 등 자율주행 인프라 완비, UAM 상용
	② 독자적 우주탐사 우주항공청 신설(2023), 차세대 발사체 및 달 착륙선 개발
	③ 양자기술 양자컴퓨터 개발, 배터리반도체 불량 검출용 등 양자센서 개발
	④ 미래의료 핵심기술 첨단재생의료치료제 개발, 디지털 치료기기 제품화
	⑤ 에너지 신기술 SMR 표준설계 완성, 수전해 수소생산 기자구축
2 신일상 Digital Everywhere	⑥ 내 삶 속의 디지털 K-클라우드 구축, 초고속 네트워크 구축(6G 개발·상용화, 2030) 독거노인 돌봄로봇 등 AI 제품·서비스 개발·보급
	⑦ 차세대 물류 부산항 신항(2026) 및 진해신항(2029) 스마트항만으로 구축
	로봇배송·드론배송 등 신물류서비스 전국 확산
	식품·의약품·배터리 등 콜드체인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구축 등
	⑧ 탄소중립도시 ⑨ 스마트농업 ⑩ 스마트그리드 주거, 식품, 에너지분야 디지털 접목
3 신시장 경쟁을 넘어 초격차 확보	⑪ 전략산업No.1 달성 반도체 산단 신규 입지, 국가전략기술(조특법)에 디스플레이 포함
	⑫ 바이오 혁신 K-바이오 캠퍼스 조성,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⑬ K-컬처 융합관광 청와대 일대 관광클러스터 구축(2027), '한국형 칸론' 5개소 조성
	⑭ 한국의 디즈니 육성 특수영상 클러스터 구축, 메타버스·확장현실 기술개발
	⑮ 빅딜 수주 릴레이 해외건설방산·원전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릴레이 수주

자료: 정부

/뉴시스 그래픽

◆ 신성장 4.0 전략 추진... "초일류국가 도약"

과거 빈곤 극복을 위한 농업 개혁, 중진국 진입을 위한 제조업 육성, 선진국 진입을 위한 IT산업에 매진했다면 앞으로는 미래산업 중심 성장동력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는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

성장 4.0전략'을 마련해 기존 정부 주도 산업육성 방식을 벗어나 민간 중심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정해 추진키로 했다.

과도한 규제, 공공부문 비중 급증, 재정외존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민간활력 저하와 도약의 모멘텀 약화에 대응해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3대 분야(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프로젝트에는 2030년까지 C-ITS 등 자율주행 인프라 완비, 우주항공청 신설(2023년), 양자컴퓨터 개발(2026년), K-클라우드 구축(2030년),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2032년)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경제부총리 주재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고 정책방향을 정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한다.

금융·인재·글로벌 협력 등 지원인프라 정비를 위해 2027년까지 혁신성장펀드를 2500억 규모로 조성해 집중 지원한다. 현재 1000억 규모 혁신성장펀드에 공공부문 출자와 민간매칭을 통해 1조원 규모 자펀드를 추가 결성할 계획이다.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임무지향형 R&D 트랙을 신설하고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조속한 임무성과 창출을 위해 중견·대기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상향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유토이미지

“긴축정책, 버틸 수 있는 체력 중요 세제혜택·금리속도 조절 관건”

전문가 6인 한국경제 긴급진단

정부가 2023년 경제성장률을 1.6%로 제시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우리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이 전망치에 담긴 셈이다.

상반기 전망 부정적… 하반기 기대감
정부 ‘건전재정’ 방향성 긍정적 평가
“전 세계 긴축, 방어적 운영 합당”

메트로신문은 1일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팀장,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장,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홍성욱 산업연구원 실장(가나다순) 전문가 6인과 함께 한국경제의 생존과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무엇인지 긴급 진단했다.

◆세계 경제 비상등…회복은 언제?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시중에 많은 돈을 풀었고, 가파른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미국 주도의 본격적인 긴축을 부추겼다. 높아진 물가와 이를 막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제는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1년을 제외하면 1%대 성장이 없었다”며 “그런데 1%대 경제성장률이 나왔다는 건 위기에 근접한 상황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홍성욱 산업연구원 실장은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 이후 응축됐던 소비가 살아나면서 좋았는데, 올해가 되면서 금리 인상, 부채 문제 등 상황이 안 좋아져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8년 수준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인플레이션 억제제를 위한 보수적인 재정 정책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율이 오르고, 재정금융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책을 못 쓰기 때문에 위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며 “전 세계가 동일한 상황이므로 자연스러운 경기 침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의 경우 하반기가 되어서야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다. 상반기까지 미국이 기준금리를 끌어올리고,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중립을 유지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팀장은 “상반기에 글

로벌 긴축 기조가 종료되고, 하반기에는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 기대한다”며 “다만, 긴축 기조 자체가 중단될 뿐 다시 바로 양적 완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복세가 크게 반등하는 모습은 보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부분 3분기부터는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한다”며 “상반기에 미국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금리 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3~6개월 후가 금리의 고점, 즉 경기의 저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전재정 기조의 예산안…“정책 방향성은 공감”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총지출 규모를

긴축정책 쓸 수 밖에 없어 규제완화·제도변화 필요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중장기적으로 건전재정 합당 문제는 시기… 무리 가지 않아야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매우 어려운 한해가 될 것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 필요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장

되고 신흥국도 경기하강을 보일 것”이라며 “따라서 내년 상반기 경기침체 완화를 위해서 재정지출을 집중하는 것은 맞는 방향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가 긴축 정책을 버텨낼 체력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허준영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건전재정을 갖고 가는 건 합당하지만, 그게 올해라는 게 문제”라며 “내년은 투자도 수출도 안 좋은 어려운 해가 될 것이다. 이런 경우 보통 정부가 민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데, 올해 정부 기조는 안 쓰겠다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 살을 빼면 몸에 무리가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고 덧붙였다.

3분기부터 경기개선 기대 비상시 대응가능한 플랜 중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하반기에는 경기 살아날 것 기업 활력 제고 힘 써야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팀장

금리, 부채 등 상황 악화 작년보다 올해 어려움 클 것

홍성욱 산업연구원 실장

였다.

◆어두운 실물경기 전망…민간 투자 이끌 어내려면?

민간 투자 활력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세제지원책 강구, 금융 시장 모니터링,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등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기업들도 긴축 경영을 예고하면서 실물경기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의 장애물로는 주요국 대비 낮은 연구개발(R&D) 투자 비율과 장비·소재의 높은 해외의존도가 꼽힌다. 또 반도체 장비·소재의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경쟁국에 비해 높아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구조다.

장상식 실장은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확대를 통해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장비·소재의 자립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에 25% 세액 공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만도 지난 11

월 반도체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15%에서 25%로 확대하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데 그쳐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메모리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위축이 우려되고 있어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메모리반도체의 경쟁력은 과감한 선제 투자에 달려있으나, 반도체 업황 악화로 주요 기업의 투자가 축소되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세제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팀장은 “결국 남은 카드는 민간 투자 활력의 재고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또 자금 시장의 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시장 안정에 대해 항상 모니터링하고, 금리 인상 속도를 추가적으로 조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성진 교수도 “지금 상황에서는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신산업들을 빨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경제 정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상호 팀장은 “기업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 엔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내년도 경제 정책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안동현 교수는 “예측보다 중요한 것은 대응”이라며 “실제로 안 좋은 일이 터졌을 경우 우리가 어떤 컨티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가지고 맞설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상식 실장은 “수출이 경제성장의 근간을 이루는 한국에 있어 2023년은 매우

국내 대표기업들 잇따라 긴축 예고
규제개선 등 민간 투자 활성화 제언
“신산업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수출 활력 제고를 통한 경제위축 방지를 위해서는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의 수출경쟁력 유지와 해외건설, 방산, 관광, K콘텐츠 등의 수출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謹 賀 新 年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함께일 때 행복은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더 키울 수 있도록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MZ “노후에 우리도 수급 가능한가요?” 늙어가는 대한민국 늦어버린 연금개혁 밀그림이라도 그려야

대한민국에 대전환의 적기가 찾아왔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2023년에 경제성장을 ‘1%대’라는 ‘저성장’ 늪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저성장이란 위기에 더해 진영·성별·세대·빈부의 갈등이 공고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퀀텀 점프’시킬 원동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메트로신문은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 수 있는 세 가지 주제를 선정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3회에 걸쳐 살펴볼 예정이다. <편집자주>



/유투이미지

① 연금 개혁, 더 미룰 수 없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25명의 노인을 부양하면 되지만 207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100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고 한다. 이런 인구 구조 때문에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주호영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25일 국회 연금특위 첫 회의에서 취임 일성으로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은 국민연금(1층)-퇴직연금(2층)-개인연금(3층)의 구조로 설계돼 있는데, ‘인구 절벽’으로 불리는 인구 위기로 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줄어들 것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수급자와 예비수급자를 위한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특징인 대한민국 인구 구성의 변화는 뚜렷하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0년 3738만명 수준에서 2070년 1737만명으로, 2020년의 46.5%로 줄어들 전망이다. 합계출산율(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지난 2018년부터 1명 수준이 깨졌고 4년 연속 줄어들어 2022년 3분기(7~9월) 합계출산율은 0.79명대다. 반면, 사회가 늙어가는 속도를 점점 빨라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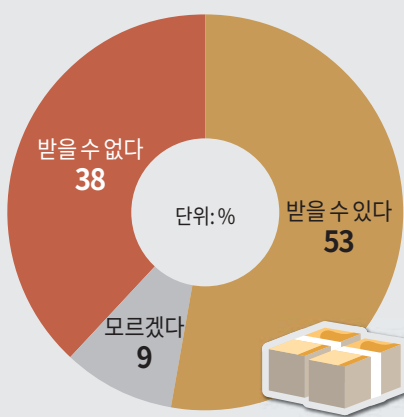
통계청은 ‘2022년 고령자 통계’에서 한국의 고령자 비중이 올해 17.5%에서 2025년 20.6%, 2035년 30.1%, 2050년에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저출생과 고령화 속도 모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OECD 조사대상 37개국 중 가장 높았고, OECD 평균(14.3%)의 2.8배에 달해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 사이 고민을 더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작성한 ‘202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55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지난 2018년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결과에서는 적립 기금이 2041년까지 증가하다가 2042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7년에 소진된다고 내다봤다.

직역연금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2020년 재정수지 적자 2조1000억원에서 점점 적자 규모가 증가해 국고보조를 받고 있으

향후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됐을 때 연금 받을 수 있을까? ● 받을 수 있다 ● 잘 모르겠다 ● 받을 수 없다 단위: %



연령별	29	15	57	보험료납부·연금수급여부	52	8	41
18~29세	29	15	57	현재 보험료 납부 중 (454명)	52	8	41
30대	24	12	64	현재 연금 수급 중 (167명)	77	6	17
40대	41	7	52	과거 보험료 납부했으나 현재 안 함 (238명)	47	7	46
50대	70	7	23	보험료 납부한 적 없음 (142명)	36	24	41
60세 이상	76	8	16				

자료/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50년 고령자 인구 절반 가까워 국민연금 적립금은 2055년 소진 2030세대 국민연금 수급 불신

수급 연령 상향, 보험료율 인상 연금 납부자 수용 여부 과제 재정안정성, 노후소득보장 딜레마

며, 군인연금도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사학연금은 2048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예정이다.

공적연금 재정 고갈 우려가 나오다보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공적 연금에 불신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리서치의 ‘여론 속의 여론’팀이 지난 7월 조사한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 및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향후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됐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묻는 문항에 18세에서 29세는 57%가 ‘받을 수 없다’고 응답했고, 30대는 64%, 40대는 52%가 ‘받을 수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50대는 23%, 60세 이상은 16%만 ‘받을 수 없다’고 응답했다.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가 아니라면 가입할 것이냐는 물음에도 18세~29세 35%, 30대 55%, 40대 54%, 50대 35%, 60세 이상 17%가 ‘가입 의향 없다’고 답했다.

결국,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 강화와 노후소득보장이란 두가지 목표 사이 절충점을 찾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선 수급 연금액이 개인 생애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가 되는지 나타내는 ‘소득대체율’, 보험가입 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인 ‘보험료율’, 현 65세인 연금 수급 연령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에 부딪힌다.

국민연금 급여는 40%의 소득대체율로 설계됐다. 다만,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40

년 가입했을 때 평균 소득의 40%를 지급 받는 것으로, 평균 연금액은 2022년 6월 기준 58만원이다. 그러나 실제 가입기간이 평균 18.7년에 그쳐서 실질소득대체율은 22.4%에 그친다. 이에 적정 급여수준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자는 의견과, 재정 안정을 고려해 유지 또는 축소하자는 의견이 갈린다.

현행 소득의 9%인 보험료율도 인구 구조 변화 추세로 봤을 때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납부자들은 더 높은 소득대체율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현 65세인 연금 수급 연령도 낮추자는 논의보다 유지하거나 늦추자는 의견이 주류다. 과거보다 늘어난 수명과 늦어진 취업 연령 등 수급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연금 납부자의 거센 저항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논의는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이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지 못하는 딜레마적 상황에 놓여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회적합의를 통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연금수급개시 연령 상향, 소득대체율 인상 등 다양한 요인을 조합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해 분석한 결과, 보험료율 인상 등 수입 증가 요인과 수급개시 연령 상향 등 지출 감소 요인의 조합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있어야만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국회 연금특위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정의당 1명의 의원이 참여해 특위 운영기한인 4월

30일까지 활동 예정이다. 특위에서 활동하는 민간자문위원회는 12월 말에 공적연금 방향을 잡고 1월 말에 연금개혁안을 만들어 특위에 제출해야한다. 이해관계자 기구가 복수의 연금개혁안을 논의하고 500명으로 구성될 국민의견수렴기구의 의견수렴을 거쳐게 된다. 내년 중 법안 통과가 목표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이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적절한 균형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균형점을 찾아서 협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개정전망결과 발표 이후 제도 개선 방안이 국회에 제출된 적이 있고, 그 논의가 거의 5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현재 공적 연금 제도 관련 문제점이나 각종 개선 방안은 나와 있는 상태”라며 “경제 상황을 고려해 어느 시점에서 점을 찍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을 때, 국민들이 최대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 논의가 이뤄지는 연금 개혁은 ‘공적 연금’ 개혁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적연금 개혁을 한다고 했지, 국민연금 개혁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해서 틀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국민연금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기초연금 이야기도 조금 나온다. 논의의 방향성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로드맵을 정확히 만든 후 국민을 이해시켜가며 개혁을 해야 한다”고 공적연금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HYUNDAI
MOTOR GROUP

2023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계묘년 새해에는
어떤 꿈과 상상이 현실이 될까요?

더욱 멋진 미래와 만나게 될
당신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QR코드를 찍고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전하는 새해인사를 만나보세요

사활 건 반도체 전쟁... '고급 패키징 기술'로 왕좌 선점

미래 먹거리 선점 000에 달했다

〈1〉 패키징

미래 반도체 시장 리더십 확보 '필수 역량'
반도체 패키지 공정 시장, 내년 70조 수준

TSMC, '3D 패키징 연구센터' 조성
삼성전자, 패키징 역량 강화 본격화
LG이노텍, FC-BGA 생산 준비 시작

반도체 업계가 미래 기술을 선점할 열쇠로 패키징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미세공정 한계를 넘어서 반도체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다가, 전문학적인 연구 개발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어 미래 반도체 시장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역량으로 평가받는다.

패키징은 동그란 웨이퍼에 새겨진 반도체를 사각형 모양으로 자르고 기판에 올려 상품으로 만들기까지 공정을 뜻한다. 크게 절단과 접착, 연결과 성형까지 4단계 공정으로 구성된다. 웨이퍼를 잘라 기판에 붙이고 선을 연결, 제품을 보호하고 상품화하는 과정이다.

패키징 기술은 최근에서야 중요성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종전까지는 '후공정'이라는 이름처럼 반도체를 안전하게 상품화하는 부수적인 공정에 불과했지만, 초미세 공정 난이도 상승으로 칩 성능 개선 속도가 늦어지면서 이를 극복할 돌파구로 주목됐다. 같은 칩을 활용하면서도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다양한 기술이 개발 중이다.

◆ 패키징 투자 본격화

가트너에 따르면 반도체 패키지 공정 시장은 2020년 488억달러(한화 약 60조원)에서 내년 574억달러(약 70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연평균

10%에 가까운 성장률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계는 패키징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가장 패키징 기술 수준이 높다고 평가받는 TSMC는 이미 패키징을 전문으로한 공장만 여러개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패키징 기술 강국인 일본과 손을 잡고 현지에서 3D 패키징 연구센터를 조성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도 최근 DS부문에 조직 개편을 통해 태스크포스(TF)였던 '어드밴스드 패키징팀'을 승격하며 패키징 역량 강화를 본격화했다. SK하이닉스도 미국에 패키징 제조시설 건립을 추진하며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패키징 제품은 '시스템온칩(SoC)'다. CPU와 GPU, 메모리와 NPU 등 다양한 반도체 제품을 칩 하나로 묶어서 만든다. 스마트폰을 더 작고 가벼우며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GPU와 조합하는 고성능 메모리인 GDDR6 규격 역시 패키징 기술이다. 마이크론이 자체 개발한 GDDR6x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에 대거 공급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JEDEC 표준 규격에도 맞는 GDDR6W 기술을 새로 개발하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FC-BGA, 미래 IT업계 판도 좌우할 제품 평가
삼성전기, 작년 말부터 2조 가까운 금액 투자
대덕전자 등 중견기업들도 FC-BGA '눈독'

고대역폭 메모리, HBM(High Bandwidth Memory) 기술은 고성능 컴퓨팅 시장에서 특히나 주목을 받고 있다. D램을 쌓아올려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용량을 탑재할 수 있음은 물론, 대역폭을 몇배나 높일 수 있어 속도도 훨씬 빠르다. 2013년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삼성전자도 시장에 동참, HBM 3까지 개발한 상태다. 최근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서버 등 업계에서 도입을 늘리면서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여기에 HBM-PIM을 새로 개발하며 성능을 한단계 높였다. HBM-PIM은 고성능 D램에 인공지능 연산 반도체를 붙인 제품으로, 메모리 병목 현상을 최소화해 HBM보다도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

◆ 파운드리 경쟁력도 패키징

이런 HBM을 다시 여러개 묶을 수 있는 기술도 있다. 삼성전자가 개발한 2.5D 패키징 솔루션, 'H-CUBE'다. H-CUBE는 메인 기판에 보조 기판을 추가하는 2단 하이브리드 구조로 HBM 6개 이상에 시스템 반도체까지 함께 더할 수 있다.

특히 H-CUBE는 단순히 메모리 제품이 아닌 파운드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패키징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고객사 요구를 충족해야하는 파운드리 사업 특성상 고성능 패키징 기술을 활용하면 수주전에서 경쟁력을 대폭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파운드리 업계 1위인 TSMC가 패키징 기술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TSMC는 2016년부터 애플의 반도체를 독점 생산하고 있다. PCB 기판을 얹어 원가와 두께를 줄이면서 여러 종류 반도체를 효율적으로 묶을 수 있는 패키징 기술인 FO-WLP(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로 경쟁사 대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TSMC가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시장을 장악하게 된 계기도 이 때부터라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가 개발한 GDDR6W 메모리도 이 기술로 구현했을 만큼 활용성이 대폭 넓어져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그저 FO-WLP를 뒤따라가는 형국은 아니다. 삼성전

자는 FO-PLP(팬아웃-패널 레벨 패키지)라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웨이퍼 단위로 칩을 패키징하는 FO-WLP와는 달리 사각형 패넌을 패키징하는 방식이다. 기판이 없다는 점은 같지만, 웨이퍼 테두리 부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생산성이 훨씬 높다는 장점이 있다.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기술적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평가지만, 엑시노스 등 일부 SoC에 적용하며 수준을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 기판 시장도 급성장

FO 패키징이 주목받고 있는 것과 달리 반도체 기판 시장은 오히려 더욱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다. 여전히 반도체를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기판이 필수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반도체뿐 아니라 기판 역시 심각한 공급난을 겪은 바 있다.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KPCA)에 따르면 올해 PCB 시장은 반도체 기판의 성장에 힘입어 10조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특히 FC-BGA(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는 고성능 기판으로 미래 IT 업계 판도를 좌우할 중요한 제품으로 평가받는다. FC-BGA는 기판 배선을 1차원이 아닌 2차원 공 모양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성능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공간 효율을 극대화해 더 많은 칩을 담을 수 있게 한다.

FC-BGA는 단순 기판으로 보기 어려울만큼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만들 수 있는 회사도 일본과 국내 업체 일부, 그 중에서도 일본 이비덴이 높은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TSMC가 최근 이비덴과 협업하게 된 계기가 FC-BGA 기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국내 기업들도 빠르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일찌감치 시장에 진출해 있던 삼성전기는 지난해 말부터 2조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최근 부산에 새로 조성된 생산 시설에서 본격적으로 제품 출하를 시작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직접 참여하며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LG이노텍도 뛰어든다. 최근 LG전자로부터 경북 구미사업장 공장을 인수, 4130억원을 투자하면서 FC-BGA 생산 준비를 시작했다. 일단 본격적인 양산은 내년 말에서야 가능할 전망이다. 이미 무선주파수(RF) 패키지 시스템(SiP)용 기판을 비롯해 고성능 기판을 생산해온 바 있어 기술적으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그 밖에도 대덕전자를 비롯한 중견기업들 역시 FC-BGA와 관련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HBM3 D램 /SK하이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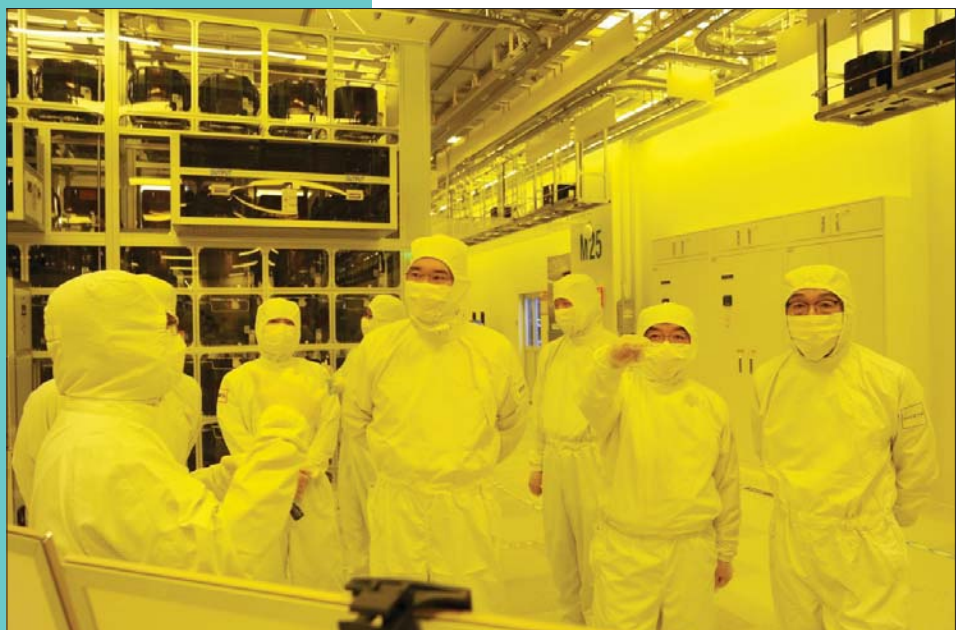


엑시노스 W920 /삼성전자



SK하이닉스 PKG MM기술팀원이 작업을 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천안 사업장 내 반도체 패키징 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삼성전자



/유토이미지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Shinhan

2023년에도 당신에게 귀를 쫑긋!

계묘년 새해,
큰 귀로 작은 소리까지 듣는 토끼처럼
고객의 말에 귀 기울여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으로
‘고객중심’을 실천하는 신한금융그룹이 되겠습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아이타스 신한리츠운용 신한AI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



내부통제 강화로 투명 경영… 불 붙은 디지털 플랫폼 대전

2023 금융의 위기와 기회

2022년 임인년(壬寅年)이 저물고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밝았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여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 금리상승 지속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도 여전하다. 한계기업은 물론 취약차주가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도 비상이다. 각 금융지주는 올해 대출 부실 최소화, 내부통제강화, 그룹 계열사 간 시너지강화,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에 방점을 둘 전망이다.

◆금융권 내부통제 한층 강화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는 2023년 신년사를 통해 변화무쌍한 시장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횡령, 금리인상, 최고경영자(CEO) 교체 등 이벤트가 많아 1순위로 내부통제 강화가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내부통제를 강조하면서 감사 조직을 키웠기 때문이다. 고도화된 기술을 탑재해 이상거래 징후를 발견하고 신분증 부정사용을 방지하는 등 금융 소비자 보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은행들은 당국의 움직임에 맞춰 내부통제를 일제히 강화했다.

NH농협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위험지표를 적용한 내부 감사 프로세스를 적용했다.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꺾기 의심거래, 고령투자자의 고위험 등급 투자 상품 가입비율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항목을 선정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상 징후 발생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신한은행은 인공지능(AI) 영상분석기술을 활용한 'AI이상행동탐지 ATM'을 전제 영업점으로 확대 시행했다. 은행권 최초로 딥러닝(컴퓨터가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학습하는 기술)을 통해 연령대별로 다양한 거래유형을 학습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거래를 탐지한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에 신분증 원본 검증 기술을 은행권 최초로 적용했다. 이 기술을 통해 기존 흑백 복사본에 대해서만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

우리은행	준법감사실 산하 팀제 개편, 여신관리본부 신설
신한은행	AI 이상행동 탐지 ATM 전 영업점 확대
하나은행	은행권 최초 신분증 원본 검증 기술 비대면 서비스
NH농협은행	은행권 최초 위험지표 적용한 내부 감사 프로세스 적용

/각사

한은, 지난해 여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 고도화된 기술로 금융 소비자 보호 작업 진행
통신·배달서비스·헬스케어 등 고객 접점 확대
전통 금융회사-빅테크 간 치열한 경쟁 지속
비재무적 영역서도 정교한 리스크관리 체계



가능했던 판별을 고해상도 컬러 복사본이나 고성능 모니터 촬영본까지 확장해 신분증 부정사용 방지와 금융사고 예방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내부 감사 조직인 감사실의 기능 중 본부조직 감사 기능을 분리해 '본부감사부'를 신설했다.

여신 사후관리를 총괄하는 '여신관리본부'도 신설했다. 여신관리본부는 산하에 '관리기업심사부'와 '여신관리부'를 두고, 연체 여신을 중점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채권 회수, 기업개선 활동 등 여신관리 강화를 통해 자산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라인사태, 파생결합펀드(DLF)사태, 은행권 대규모 횡령 사태 등 금융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당국의 기조에 맞춰 금융권에서도 내부통제를 한층 강화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금융당국에서도 은행권에 내부통제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며 "올해는 고객들이 피해를 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모니터링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플랫폼 선택이 아닌 필수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의 위협에 맞서 디지털 플랫폼 대전 역시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전통 금융 영역은 물론이고 통신과 배달서비스, 헬스케어 등에서 고객 접점을 확대해 생활금융 플랫폼 기업을 금융권에서는 꿈꾸고 있다.

올해 역시 빅테크가 선점한 디지털 플랫폼의 3T(Traffic·Time·Sharing·Transaction: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오래 머물며 자주 사용하는 길러 콘텐츠 개발) 영역에서 전통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KB금융은 부동산(KB부동산), 통신(리브모바일), 모빌리티(KB차차차), 신한금융 배달앱(뽕겨요) 등이 있다.

다른 금융회사들 역시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에 집중하고 있고 올해는 헬스케어 서비스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줄어드는 영업점으로 인해 고객 접점의

대안으로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에도 힘을 예정한다.

메타버스는 향후 가상세계에서 고객들이 금융상담을 받고 직접 금융상품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민은행은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와 협업하고 있고, 농협은행은 핀테크 전문 기업 핑거와 손을 잡았다. 이외에도 신한·하나·우리은행은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대면 영업점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대안 채널을 제공하는 것은 곧 고객 유입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상대적으로 플랫폼 경쟁력이 있는 빅테크 업계와의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성장 위한 ESG·회사내 시너지 모색

마지막으로는 지속가능 성장이다. 시장의 변동에 민감한 금융회사가 경기가 '시장의 상승·하락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자본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후·ESG 등 비재무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정교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나갈 것으로 보인다.

ESG 투·융자를 통해 금융회사 본연의 역할을 속도감 있게 실천해 나가고, 특히 상대적으로 ESG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생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빅블러 시대에 발맞춰 그룹내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업권별 제휴 역시 높여나간다.

경제의 디지털화라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금융사의 기능 확대라는 관점에서 전통적인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산업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산분리의 기본 원칙은 유지하되 금융회사의 기능 확대라는 관점에서 부수업무나 자회사 출자가 가능 업종 범위를 열어주는 '열거주의'나, 금지업종만 두는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식을 새롭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새해 밝았지만 금리 부담 여전… 새로운 대출제도 ‘눈길’

5대 시중은행 취약차주 대상
1년동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5억원도 특례보증자리론 출시

올해도 금인 인상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해에 도입되는 대출제도에 이목이 집중된다.

1일 한국은행과 월가의 10개 투자는 행(IB)은 대체로 오는 3~5월까지 연준의 금리인상이 계속되고, 최종 금리 수준은 5.0~5.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형은 연 5.52~7.48%로 8%에 육박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연 5~7% 수준까지 뛰었고, 신용대출 평균 금리도 7%를 훌쩍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은 대출지원책과 함께 개정된 정책금융상품을 내놓을 전망이다.

◆**고정금리 특례보증자리론 주목**

먼저 정부가 올해 특례보증자리론을 출시할 예정이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례보증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보증자리론, 적

〈정책 모기지 개편〉				
상품	현행			개편
	우대형 안심 (일반형, 당초계획)	보증자리론	적격대출	특례보증자리론
주택가격	6억원 (9억원*)	6억원	9억원	9억원
대출한도	3.6억원 (5억원*)	3.6억원	5억원	5억원
소득한도	1억원 (없음*)	7천만원	없음	없음
금리	3.8~4.0% (보증금리-10bp*)	4.25~4.55%	4.55~6.91%**	단일금리산정체계 (+우대금리 적용)

*잠정. **2022.11.1 기준 적격대출 금리 상단. /금융위

격대출을 합친 상품이다. 신규 주택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전용)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저조하자 올해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특례보증자리론 형태로 출시키로 했다. 특례보증자리론은 집값 9억원에 소득요건은 폐지하고, 대출한도 역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역시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면서 서울에서도 특례보증자리론 대상이 되는 주택이 예전보다 늘었다. 기존 정책모기지 상품의 주택가격 기준은 6억원 이하로 돼 있어 서울에서는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다.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올해 1년 동안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대출자들의 이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자의 부담을 낮춰준다는 취지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가계대출(주택담보·전세자금·신용대출)을 받은 대출자에 한해 올 1월부터 1년간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신한은행도 올 1월 신용등급 하위 30%인 가계대출(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고객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시행 기간은 1년이다.

우리은행은 2일부터 내부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한다.

마지막으로 제도권 금융에 접근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의 금리 상단이 1%포인트(p) 인상되지만, 서금원의 분담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취약차주의 부담은 덜도록 했다.

◆**서금원, 인상 이자 60% 부담**

서금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근로자햇살론 대출금리 상한은 연 10.5%에서 연 11.5%로 1.0%p 인상된다. 다만 서금원이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최대 1.0%p)의 60%를 부담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 대출금리 상단인 연

10.5%에 근로자 햇살론을 실행한 차주는 서금원 보증료인 2.0%p를 더해 연 12.5%의 금리를 부담했다. 올해부터 이 차주는 대출금리 상단인 연 11.5%에 인하된 서금원 보증료율 1.4%p를 더해 연 12.9%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상품 또한 대출금리 상한을 1.0%p 인상하기로 했으나, 서금원이 보증료율을 1.0%p 인하해 대출금리 인상분을 모두 부담한다.

특히 서금원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근로자햇살론(1500만원→2000만원), 햇살론15(1400만원→2000만원), 햇살론뱅크(2000만원→2500만원)의 한도 확대 적용을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도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이라며 “빚을 갚고 대출을 최소화하는 자산관리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정책 변화와 대출 목적, 소득 변화 등에 따라 대출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한용구 행장 첫 지시… “이체 수수료 면제” “리스크 관리 최우선, 경영 내실 다져야”

〈신한은행〉

신한은행, 고객중심 경영 사업 박차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평생 무료

신한은행이 모바일 앱 뉴솔(New SOL)과 인터넷뱅킹의 이체수수료를 전액 영구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고객은 모바일 및 인터넷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시 건당 500원, 타행으로 자동 이체시 건당 300원씩 납부하고, 거래 기준 등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한 고객만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새로 취임한 한용구 은행장이 전임 은행장인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내정자의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계승, 발전하는 첫 사업으로 한용구 은행장의 결단과 함께 신속하게 추진됐다.

한 은행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리딩 뱅크답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신한은행 전경. /신한은행

역할을 어떻게 할건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익을 낸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체 수수료 면제를 가장 빠른 시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고객 중심은 신한이 일류 기업으로 가는데 가장 커다란 대명제”라며 “이체 수수료 면제가 고객과 사회를 위한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것이며, 모든 은행이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작년 7월 이후 금리인상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선제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하고 있다.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 금리, 연 5%로 일괄 감면 ▲주택담보대출 1억원 이상 보유 고객 중 21년말 대비 0.5%p 이상 금리상승 고객 대상 이자유예 ▲취약차주 전세자금대출 금리 0.4%p인하 ▲서민금융 지원 상품 새희망홀씨 대출 신규 금리 1.5%p인하 등이 대표적인 ‘고객중심’ 금융지원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신년사

김광수은행연합회 회장(사진)은 “금융산업도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상품, 조직, 문화, 전략을 재정비하고, 경영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금융이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라는 날카로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경제전망과 관련해 “올 한해 글로벌 거시경제가 수축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만큼 금융산업도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와 자금시장 경색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맞이할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으로 촉발된 금융산업 경쟁구도의 변화가 뉴노멀로 정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빅테크와 핀테크가 금융시장의 어엿한 플레이어로 안착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은 더욱 다채로운 상품을 출시하며 기존 은행과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며 “시중은행 또한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한 단계 높이고 소비자 니즈를 제고하는 데 앞장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향후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으로 ▲리스크관리 ▲경제적 방어막 역할 수행 등을 꼽았다.

김 회장은 리스크관리와 관련해 “금융권은 작년 중 총당금 기준을 개선해 대손충당금 규모를 선제적으로 늘렸으나 가계 및 한계기업의 상환능력 저하 등 실물 부문 부실 확대에 대비해 크레딧라인을 재점검하고 산업별 위험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상품, 조직, 문화, 전략을 재정비하고, 경영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회사는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데이터 수집·분석체계를 고도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초개인화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는 한편, 조직의 결합(M&A)과 분할(Spin-off), 업무위탁 등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고령자 안전교육 이수시 車보험료 할인

금감원 Q&A

고령·장애인에 유익한 상품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세제혜택

Q. 고령 및 장애인 금융소비자의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A. 고령 및 장애인 소비자의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는 보험료 할인과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보험료 할인과 관련한 정보

입니다.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용자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안내받은 차대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를 할인해줍니다.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 배기량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서민 나눔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제 혜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면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은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약’에 가입해 소득세법상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시 계약 내용의 변경 없이 공제 한도 및 공제율을 적용받아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금융상품 가입 시 ‘비과세종합저축’을 우선 이용해보세요. 비과세종합저축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품으로 은행 예·적금, 금융투자상품, 보험 등에도 적용됩니다.

/구남영 기자

신임 기업은행장에 김성태 전무이사 내정

중소기업은행장에 김성태 현 기업은행 전무이사(사진)가 내정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김성태 현 기업은행 전무이사를 신임 기업은행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은행법 26조에 따라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내정자는 기업은행에서 약 33년간



재직하면서 소비자보호그룹장, 경영전략그룹장, 전무이사 등 주요보직을 거치며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금융뿐만 아니라 소비자 중심 업무관행 정착 등 중소기업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기여했다.

/나유리 기자

이재용 회장 취임 후 첫 신년

뉴삼성 향한 ‘광폭 행보’ 나서나… 경제계 인사회 참석 유력

지난달 30일 귀국… 국내서 새해맞이 CES 불참, 다보스포럼 참가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는 사법리스크 ‘족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 첫 새해를 국내에서 맞이한다. ‘뉴삼성’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는 기대 속에, 올해에도 ‘광폭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30일 9박 10일간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21일 출국해 23일 동남아 최대 베트남 삼성전자 R&D센터 준공식에 참여했다. 회장 취임 이후로는 첫 동남아 일정, 한국과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민간 외교관’으로 역할을 이어갔다.

이 회장은 그 밖에 일정을 따로 밝히지 않았지만, 의미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삼성SDI가 처음으로 해외에 법인을 세운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스타트업 등 성장이 돋보이는 싱가포르 등 주요 거점을 둘러본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들어 동남아 성장이 본격화하고 있는데다가, 중국을 이을 새로운 생산기지가 시급한 상황에서 새로운 거점을 모색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스

이 회장이 새해를 앞두고 돌아오면서 2일 열릴 예정인 삼성전자 시무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모처럼 신년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2014년 故 이건희 선대 회장을 마지막으로 총수 명의 신년 메시지를 내지 않아왔다. 이 회장이 그동안 비어있던 자리를 채운 만큼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는 분석, ‘신경영 선언’이 30주년을 맞았다는 것도 새로운 메시지를 더 기다리게 한다.

다만 취임한지 3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은데다가, 아직 등기 이사가 아닌만큼 올해에는 조용하게 지나갈 것이라는 예상도 설득력이 적지 않다. 실용주의적인 경영 방침을 보여왔던 만큼, 올해 어려운 경영 환경을 감안해 한동안 ‘정중동’ 행보를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힘을 얻는다.

일단 확실한 일정은 2일 열리는 경제계 신년 인사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정이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총출동할 전망이다. 이 회장이 해

외 출장중이라 참석이 불투명했지만, 행사를 앞두고 귀국하면서 사실상 확정됐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2013년 이후 10년만에 CES2023을 돌아볼 가능성도 제기했지만, 결국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1월 중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 오랜만에 참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참석을 확정짓는다면 2007년 이후 무려 16년만이다.

이 회장이 발길을 끊었던 다보스포럼에 오랜만에 참석하는 이유는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을 위해서로 전해진다. 다보스 포럼은 전세계 최고경영자와 지식인들이 참석하는 자리, 대한상회가 한국기업을 소개하고 부산엑스포 지지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한 ‘코리아 나이트’에 힘을 보태겠다는 것. 이 회장이 전세계에 핵심 인사들을 망라한 ‘JY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민간 외교관’으로 역할도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이후에도 이 회장은 다양한 국내외 광폭 행보를 준비 중이다. 당장 미국 테네시에 열리는 파운드리 공장 증설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현지 정부가 ‘삼성 고속도로’ 건설까지 약속한 만큼, 현장을 둘러보는 것뿐 아니라는 중언 추가 투자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올해에는 ‘의미 있는 M&A’를 추진해야 하는 만큼 마무리 작업을 위한 글로벌 출장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등기 이사로 올라서며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면 더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사법리스크’는 족쇄로 평가된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신년사

“기업에도 관계 중요한 시대 최우선 과제는 구성원 행복”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일 그룹 전체 구성원들에게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지켜야 할 가치를 전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며 경영시스템을 단단히 가다듬는 기회로 삼아 나아간다면 미래는 우리의 편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이메일로 보낸 2023년 신년 인사에서 지난 1년 간 국내외 경영환경의 변화가 거센데 가운데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며 도전을 거듭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프런티어(개척자)’라 칭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최 회장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로 지구와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꼽으며, “기후변화, 질병, 빈곤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업이 앞으로 인류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 회장은 “이제는 기업에게도 ‘관계(Relationship)’가 중요한 시대로, 나를 지지하는 ‘쥘팬’이 얼마나 있는

지, 내가 어떤 네트워크에 속되어 있는지가 곧 나의 가치”라고 언급하며,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관계’의 크기와 깊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의 크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이러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돌아보고, 무엇을 하면 좋을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자”고 주문했다.

최 회장은 끝으로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구성원들의 행복’임을 강조하며, “새해에는 무엇보다 구성원 곁에 다가가 함께 행복을 키우는 기회를 늘리고 구성원의 목소리가 경영에 반영되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움츠러든 시기, 준비된 자엔 기회 적극적이고 도전적 자세 가져야”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2023년 신년사에서 “더욱 거친 경영환경이 예상되지만 우리가 잘 준비돼 있다는 사실에 자신을 갖고 미래 선점의 기회를 찾자”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박 회장은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금융시장 불안 ▲강대국 간 패권 경쟁 ▲원자재 공급망 혼란 등 기업을 둘러싼 여러 불안요인을 언급하며 “신중함을 취한다고 해서 소극적이어서 안 되며 업무 일선에선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회장은 “모두가 움츠러드는 시기가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라면서 “우리는 잘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에 자신감을 갖자”고 강조했다.

특히 박 회장은 ▲단단해진 재무체력 ▲기회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에서의 사업경험과 기술력 우위 ▲미래 성장동력 사업의 앞선 기술과 제품력 등에 대한 자신감을 꼽았다.

그는 “비즈니스 모델 발

굴, 새로운 시장 진출 등에서 적극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재무체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재무구조 강화에 계속해서 힘을 기울여 나가자”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룹이 주력하는 에너지 분야에서 원자력, 수소 등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 주목하며 “기회 확대가 뚜렷하게 예상되는 분야에서 누구보다 앞서 있다는 자신감을 갖자”고 임직원들을 독려했다.

이어 협동로봇, 수소드론, 3차원(3D) 프린팅 등 그룹이 강점을 보이는 분야를 거론하며 “미래 성장동력이 될 기술과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고 그룹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의지로 제품과 기술을 다져 나가자”고 당부했다.

/양성운 기자 ysw@

“VOC 넘어 ‘고객 몰입 경영’ (고객 목소리 경청) 기업 전략·문화 혁신할 것”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VOC(고객 목소리 경청)’를 진화시킨 ‘고객 몰입 경영’을 선포했다.

조 회장은 2023년 효성그룹 신년사를 2일 발표하며 올해 목표를 이같이 설정했다.

고객 몰입 경영은 고객 최우선 주의를 실천한다는 의미로, 경영전략·관리시스템·조직문화·리더십 등 경영활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 중심으로한다. 국내에서는 조 회장이 처음으로 내세웠다.

조 회장은 올해 글로벌 경제 불황 심화를 앞두고, ‘고객 만족’을 넘어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고객 몰입 경영을 새로 내세우게 됐다. 단순 품질 만족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미래 니즈까지 충족하는 ‘고객 행복’으로만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 회장은 이를 위해 VOC를 넘어 고객을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서는 4가지 실행 원칙을 제시했다. ▲고객이 지닌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 장기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깊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업무 수행 ▲고객의 불만과 문제제기를 고객경험 혁신의 아이디어와 영감의 원천으로 여기는 마음가짐 ▲제품 기획부터 R&D, 생산운영 전반에서 고객 최우선주의 실천 등이다.

조 회장은 “고객 몰입 경영의 실천이야말로 고객에게 가장 먼저 선택받는 효성,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앞서 나가는 효성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웅 기자 juk@



총명한 리더십에 남다른 기지, 통찰력까지

‘토끼띠 CEO’, 위기 속 기업 도약 위해 뚝다

‘흑토끼해’
재계 토끼띠
리더손경식
CJ그룹 회장강병중
넥센타이어 회장구본준
LX그룹 회장권오갑
현대중공업 회장서정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최재원
SK온 수석부회장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DS부문장이정애
LG생활건강 사장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박세창
금호산업 사장김남호
DB그룹 회장최윤범
고려아연 대표이사 회장노종원
SK하이닉스 사장

/각 사. 유튜브이미지

계묘년 토끼띠 리더

2023년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다.

토끼띠는 성격이 온순하며 자애로운 성격으로 총명한 리더십과 강한 의지를 지녔으며 지혜롭다고 꼽히는 동물로 ‘만물의 성장과 번창’을 의미한다. 또 통찰력은 물론 자신감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토끼띠는 1939년생, 1951년생, 1963년생, 1975년생 등으로, 경기침체 상황에 놓인 계묘년을 맞아 기업의 도약을 이끌게 될, 재계에 토끼띠 CEO가 누가 있는 지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500대 기업 중 토끼띠 CEO는 총 67명으로, 1939년생이 2명, 1951년생은 4명, 1963년생은 56명, 1975년생은 5명이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토끼띠 CEO들은 2023년에도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총명한 리더십으로 회사를 이끌고 토끼 같은 기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1939년 토끼띠인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CJ제일제당 대표이사 회장을 겸하고 있다. 한일은행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해 1993년 제일제당이 삼성그룹에서 분리할 때 제일제당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계열 분리를 주도했다. 1995년 제일제당 회장에 올랐으며 2002년 CJ로 회사 사명을 변경한 데 이어 2005년까지 경영 일선에서 일했다. 손 회장은 2018년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장(경총 회장)을 맡아 3번째로 연임 중인데, 기업인들을 대변해 최저임금 등 경제 사안에 대해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역시 1939년생인 강병중 넥센타이어 회장은 28세의 나이로 일본 중고화물차 수입을 시작, 화물운수회사 옥정산업을 설립하며 경영 일선에 뛰어들었다. 이후 운수업에서 가장 비중이 큰 소모품이 타이어라는 점에 착안해 1973년 재

스타이어를 생산하는 흥아타이어공업을 설립했다. IMF 시절 자동차용 타이어를 생산하는 우성타이어(현 넥센타이어)를 인수해 부채 비율이 6000%에 육박하던 회사를 100%대의 우량기업으로 변모시키는 수완을 발휘했다.

토끼띠, 만물의 성장·번창 의미
500대 기업 중 CEO 총 67명
1939년생 손경식·강병중 만형

1951년생인 구본준 LX그룹 회장은 고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셋째 아들이자 구본무 회장의 동생이다. 그는 LX홀딩스 대표도 맡고 있으며, LG상사 대표이사 부회장, LG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등을 거쳤다. 하지만 2018년 구본무 회장이 별세하고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아들인 구광모 회장이 총수에 오르자 LG고문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그는 2021년 LG상사, LG하우시스 등 5개 계열사를 LG그룹에서 계열을 분리해 LX그룹을 세우면서 다시 회장 자리에 올라 그룹 안팎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역시 1951년생인 권오갑 현대중공업 회장은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때부터 일하기 시작해, 현대중공업이 겹겹 마를 떼던 시절부터 1위 조선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한 인물이다.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런던사무소 외자구 매부 부장, 서울사무소 전무를 거쳐 현대중공업 부사장과 울산현대호랑이축구단 대표를 지냈다. 현대중공업이 아부다비 국제석유투자회사로부터 현대오일뱅크를 인수하면서 현대오일뱅크 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권 회장은 지난 3월 지주회사명을 ‘현대중공업지주’에서 ‘HD현대’로 변경했고 50주년 비전 선포식에서 이를 공식화했다.

서정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겸 아모레퍼시픽 대표는 서성한 태평양창업주의 차남으로 1963년생 토끼띠다. 1987년 아모레퍼시픽의 전신인 태평양화학에 입사한 후 2013년 그룹 회장직을 맡았다. ‘서정배 신화’로 잘 알려져 있는데, 2019년 창립 후 처음 아모레퍼시픽그룹 해외 매출 2조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은 1963년생으로, 1989년 선경(SK네트웍스)에 입사하며 SK그룹에 합류했다. SKC&C,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사장 등을 거쳐 현재는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박 부회장은 SK하이닉스를 반도체 1위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1963년생인 최재원 SK온 수석부회장은 SK그룹 수석 부회장을 겸하고 있으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이다. SKC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SK텔레콤 전략지원본부장과 부사장, SK&S 대표이사 부회장을 거쳤다. 그는 SK그룹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초기부터 주도해왔으며 2021년부터 SK온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최준영 기아자동차 부사장은 1963년생으로 2018년부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1990년 현대자동차로 입사했고, 2009년에는 기아자동차(현 기아) 광주지원실장 이사대우로 임원 반열에 올랐다. 이후 기아차 광주충무안전실장 이사과 노무지원사업부장상무, 경영지원본부장 전무 등을 거쳐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다. 최 부사장은 그룹 내 노무관리 전문가를 꼽히고 있으며, 고질적인 노사갈등 리스트 해소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동안 현실적인 타협점을 이끌어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정애 LG생활건강 사장도 1963년생으로 토끼띠다. 1986년 LG생활건강에 입사했으며 2011년 생활용품 사업부

장을 거쳐 2015년 럭셔리 화장품 사업부장 자리에 올랐고 2018년에는 리프레시먼트(음료) 부분 사업부장에 올랐다. 이달 1일 취임한 이 사장은 그동안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면서 회사를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장은 내년에 LG생활건강 내질 다지기에 주력할 계획인데,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임무를 띄고 있다.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DS부문장은 1963년생으로 토끼띠 경영인이다. 2020년 삼성전자 대표이사를 거쳐 2022년부터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겸 다바이솔루션(DS) 부문장을 맡았으며 지난 12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승진 이후 처음 단행한 사장단 인사에서 대표이사직을 유지했다. 경 사장은 반도체 설계 전문가로 메모리 반도체 개발을 주도해왔다.

63년생 권오갑·서정배·박정호
토끼띠 여성 CEO 이정애 주목
75년생 조원태·김남호·최윤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고 조양호 전 회장의 장남으로 1975년생으로, 대한항공 대표이사도 맡고 있다. 한진정보통신에 입사한 후 대한항공으로 자리를 옮겨 10년 만에 부사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그 후 한진그룹 IT 계열사인 유니커버스 대표로 선임되며 경영 일선에 나섰다. 2016년 대한항공 대표에 오른 데 이어 2019년 한진그룹 회장에 취임하면서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대표를 겸직했다. 대한항공의 전통적 조직문화를 젊고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권위적 오퍼 이미지를 벗으면서 한진그룹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박세창 금호산업 사장도 1975년생으로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사장, 아시아나IDT 사장 등을 거친 후 2021년부터 금호산업 사장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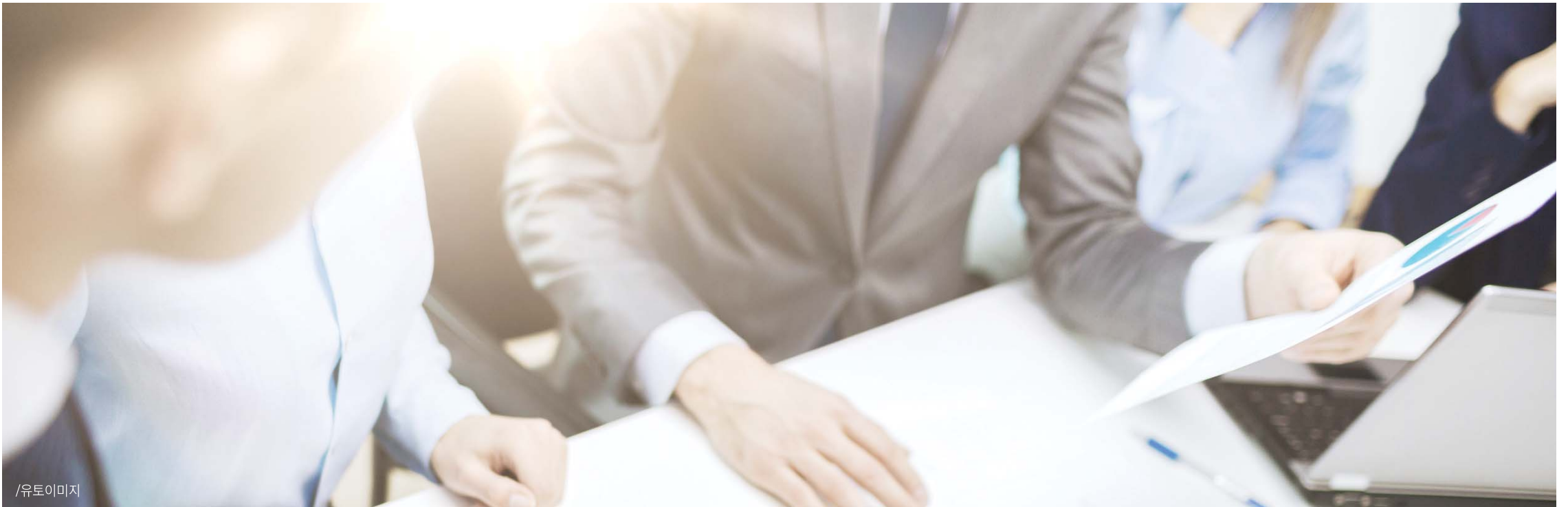
1975년생인 김남호 DB그룹 회장은 경영컨설팅 회사인 AT커니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하다 2009년부터 그룹 경영에 참여해왔다. 그는 동부제철 아산만관리팀으로 입사했으며, 인사팀과 도요지사를 거쳐 동부판한농(현 판한농)에서 근무했다. 2015년 4월에는 DB그룹 금융부분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동부금융연구소(현 DB금융연구소)로 옮겨 상무를 거쳐 부사장 자리에 앉았다. 2020년 7월에야 아버지인 창업주 김준기 전 회장의 뒤를 이어 회장 자리에 올랐다. 김 회장이 DB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대표이사 회장도 1975년생으로 토끼띠이다. 최 회장은 2007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경영지원본부장으로 부임하면서 회사 생활을 시작했다. 2014년에는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인 SMC(선메탈) 사장을 맡아 기술 개발과 공정 개선에 주력하면서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탈출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노종원 SK하이닉스 사장은 1975년생으로 2003년 SK텔레콤에 입사했다. SK하이닉스 사업 총괄을 지냈으며 이후 SK하이닉스 경영지원 담당 부사장을 맡았다. 이번 인사에서 노 사장은 SK하이닉스에서 사업 담당 임원 업무를 내려놓고, 솔리다임 최고사업책임자(CBO) 역할에 집중하도록 했다. 낸드플래시 업황이 악화된 데다 솔리다임이 인텔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회성 비용에 적자 폭이 확대되는 상황이며, 솔리다임의 올해 3분기 기준 누적 순손실은 871억원에 달해 그가 져야 하는 책임은 크기만 하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미래먹거리 선점 나선 기업들



키플레이어 'MZ·여성·재무통'

MZ임원 (가나다순)



배범희
삼성전자 DX 부문
HW기술그룹 상무



우정훈
LG전자
수석전문위원 상무

오너가 3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사장



이선호
CJ제일제당
식품성장추진실장



백인한
대원제약 사장

여성



이영희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실장 사장



이영란
동원그룹 상무보

CFO



박지한
LG CNS CFO



이창실
LG 에너지솔루션 CFO

재계 경영혁신 가속

경기침체와 전염병에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은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오히려 '위기'는 기업으로 하여금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경고'를 주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세상은 변하고 있지만 차체가 클수록 나아가는 방향을 전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기업이 단번에 바뀌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기본이 있으니, 바로 '사람'의 중요성이다. 기업들은 다가오는 세상을 대비하는 첫 단추로 '인사'를 택했다.

이병철 삼성 초대 회장도 1980년 전국경제인연합회 강연 자리에서 "기업은 사람"이라며 "기업(企業)은 문자 그대로 업(業)을 기획(企劃)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기업을 경영한다는 이 소박한 원리를 잊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의 말은 2023년에도 유효하다. 불확실성의 시대 속, 재계는 이전보다 임원들에게 더 큰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편집자주

◆MZ, 기업 발전에 추진력을 더하는 힘
임원의 자리에 '5060 남성' 사진만 나열되는 시대는 '과거'로 불리게 됐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여성과 MZ 임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성과 중심의 인사 기조는 30~40대 젊은 임원들이 전면으로 나설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100대 기업에서 활약하는 임원 중 1980년 이후 출생한 MZ세대 젊은 임원 숫자도 100명을 넘어서며 1%를 넘었고, 지난해에는 10%를 넘어섰다. IT가 시대의 변화를 이끌면서 IT에 능통한 인재·임원들이 필요한데 MZ세대가 이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지난해 총 187명(부사장 59명, 상무 107명, 펠로우 2명, 마스터 19명 등)을 승진시켰는데 기술 분야 인재를 나이와 직급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선임했다. 30대 상무는 3명, 40대 부사장은 17명이 나왔는데 2021년 30대 상무 4명, 40대 부사장 10명보다 큰 규모다. 상무 승진자 중 최연소는 배범희 DX부문 생산기술연구소 H/W기술그룹 상무로 그의 나이는 2023년 기준 38세다. 세계 최초 RF 신호 전송 등 미래 주력 기술 확보와 다수의 논문·특

허 출시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최연소 부사장 승진자는 이정원 DS부문 S.LSI사업부 Modem개발팀장이다. 올해 45세인 이 부사장은 모뎀 시스템 전문가로 모뎀 알고리즘 개선과 설계 최적화 등을 통해 5G 모뎀 성능 향상 등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승진했다.

LG는 신규 임원 114명 가운데 92%를 1970년대 이후 출생자다. 최연소 임원인 우정훈 LG전자 수석전문위원(상무)은 1983년생이다. SK하이닉스는 1980년생인 박명재 담당을 차세대 기술 인재로 발탁하며 미래 먹거리 개발에 추진력을 보냈다.

◆'MZ오너', 신사업 선두에 선다

여기에 오너가 '젊은 피'들이 일찍 경영에 참여하며 MZ 임원층 강화에 힘을 더하고 있다. 이들 역시 신사업 부서로 배치되는 등 기업 미래 먹거리 선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은 한화솔루션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하며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하며 태양광 사업 등을 성공시켜 경영능력을 입증 받았다. HD현대 및 한국조선해양의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는 정기선 사장도 82년생으로 젊은 리더다.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의 장남인 그는 자율주행 선박이나 로봇사업 같은 신사업 확대에 주력하고, 소통을 중요시하는 MZ세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ESG경영' 역행할 수 없는 흐름 재계, 다가오는 미래 '인재' 대응 성과·능력 중심 인사기조 확산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장남인 이선호 경영리더(임원)에게 CJ제일제당 식품성장추진실장을 맡기며 유통산업에 힘을 더한다. 임원에서 실장으로 초고속 승진한 사례로, 그는 글로벌 식품 사업과 신성장동력 발굴, 신사업 투자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제약업계의 젊은 경영인 등용도 눈에 띈다. 백인한 마케팅본부장 전무를 경영 총괄 사장으로 선임한 대원제약은 선임했다. 백 신임 사장은 1984년생으로 오너 2세인 현 백승호 회장의 장남이다. 파먹는 감기와 '콜대원'의 성공으로 입지가 탄탄해진

백 신임 사장은 해외 시장 개척 성과와 더불어 사업다각화의 책임자로 선택됐다.

◆'능력 있는 여성' 임원 증가... '추세'이자 '대세'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역행할 수 없는 흐름이 되자 여성 임원들이 속속 등장했다. 앞으로 더 많은 여성 임원이 경영 전면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도 여성 직원들이 경력 단절을 겪지 않고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일이 과제가 됐다.

2025년 ESG 공시 의무화가 시행되면 이러한 기조는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이에 관해서는 이견이 존재했다. 재계 관계자는 "ESG에 부합하는 인재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결국엔 담당 분야에서 뛰어난 경영 능력을 갖추는 것이 임원의 최우선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LG생활건강의 여성임원들이 두각을 드러냈다. LG생활건강은 이정에 부사장을 사장 승진과 동시에 신임 CEO로 내정하며 5대 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여성 사장을 배출했고, 삼성전자는 이영희 글로벌마케팅실장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며 두 기업 모두 오너일가 외 여성 사장을 배출했다.

동원그룹은 이영란 동원씨앤에스 유통영업부장을 상무보로 승진시켰다. 이 신임 상무보는 동원그룹 최초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이기도 하다. 동원은 "유통영업부장으로 일하며 현장 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의 판촉 역량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내 기업의 유리천장은 두텁다. 아직 한국은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에서 10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어 여전히 여성 인력 등용과 관련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공간을 지켜라"... CFO에게 거는 기대

여기에 불황을 이기기 위해 기업은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기업 재무기반을 다져달라는 임무를 맡겼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미래 사업 준비에 투자할 자본이 마를 것이라는 공포가 재

계를 압박했다. 결국 자금을 담당하는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글로벌비즈니스 대표 자리에 이규복 현대차 프로세스혁신사업부 전무를 올리면서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 신임 대표는 유럽 지역 판매법인장 및 미주 지역 생산법인 CFO를 경험한 재무, 해외판매 기반 전략기획 전문가로 현대차그룹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발전 전면에 나선다.

오너가 3세 등 3040 젊은 임원 증가 경기침체 지속에 CFO 역량 중요해져 유리천장 여전히 두터워... 개선 필요

LG그룹도 차동석 LG화학 CFO, 이창실 LG에너지솔루션 CFO, 이남준(₩) LG 재경팀장, 박지환 LGCNS CFO 등이 경영 전반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특히 재경 전문가인 차 사장은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과 대내외 경영환경 리스크에 대한 위기 대응 역량을 인정받았다.

재계 관계자는 "대의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재무 쪽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며 "투자전문성을 확보하고 경영 안정화가 높아지면 미래 먹거리 확보도 더 원활해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다시 해외로. 다시 외국어.

사이버한국외대 신·편입생 모집

모집일정 1차 22. 12. 1(목) ~ 23. 1. 11(수)
2차 23. 1. 30(월) ~ 23. 2. 15(수)

모집학부·학과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마케팅·경영학과
산업안전학과
다문화·심리상담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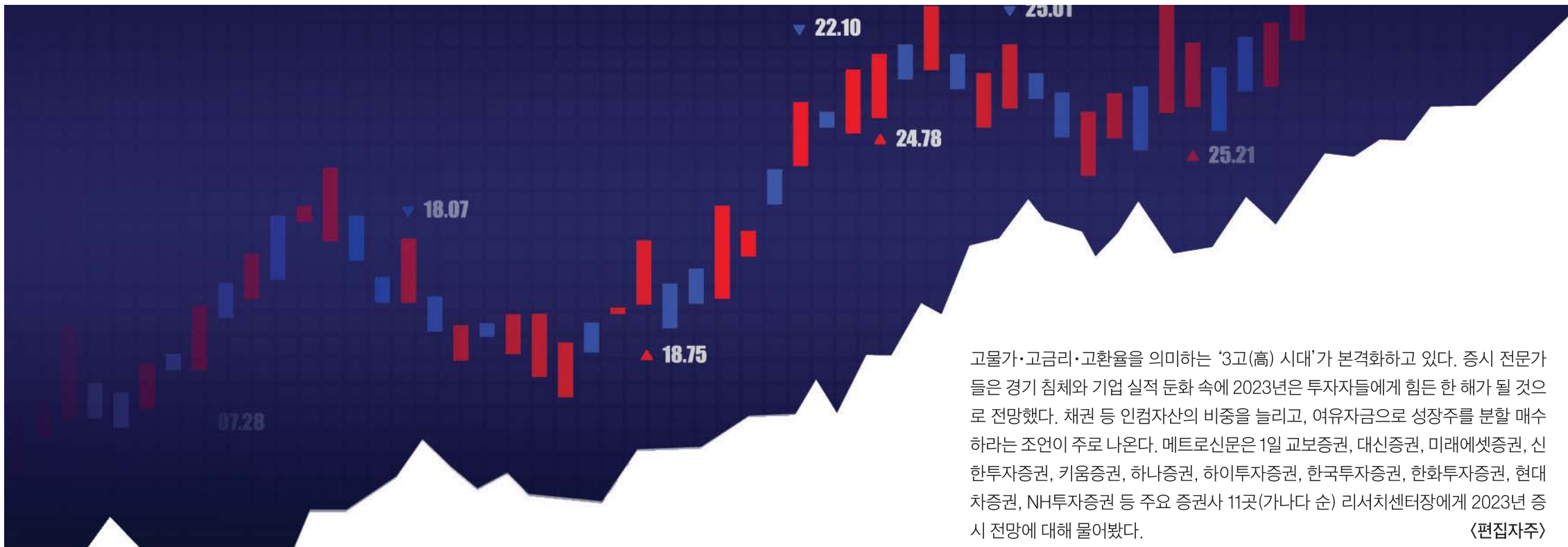
입학상담

02-2173-2580

TALK ID. cufs

입학지원센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을 의미하는 ‘3고(高)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와 기업 실적 둔화 속에 2023년은 투자자들에게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채권 등 인컴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여유자금으로 성장주를 분할 매수 하라는 조언이 주로 나온다. 메트로신문은 1일 교보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NH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 11곳(가나다 순) 리서치센터장에게 2023년 증시 전망에 대해 물어봤다.

〈편집자주〉

“코스피 ‘상저하고’… 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하이투자증권 고태봉	키움증권 김지산	교보증권 김형렬	현대차증권 노근창	한화투자증권 박영훈	미래에셋증권 서철수	NH투자증권 오태동	한국투자증권 유종우	신한투자증권 윤창용	대신증권 정연우	하나증권 황승택
코스피 지수 전망	상고하저 (2050~2600)	상저하고 (2150~2700)	상저하고 (2200~2650)	상저하고 (2200~2570)	상저하고 (2000~2600)	상저하고 (2050~2600)	상저하고 (2200~2750)	상저하고 (2000~2650)	상저하고 (2000~2600)	상저하고 (2050~2640)	상저하고 (2050~2550)
투자 유망 업종	기계 자본재, 방산, 에너지	반도체, 이차전지, 방산	배터리·이차전지· 소재, 바이오·제약	자동차·부품, 배터 리·이차전지·소재, 반도체·부품	에너지, 소재, 산업재	이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 헬스케어, 신재생 에너지	경기방어주(은행주, 음식료, 건강관리), 반 도체, 이차전지, 게임	수출주(조선, IT가전, 기계, 자동차, IT하드 웨어), 방어주(통신, 필수소비재)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AI, 스마트팩 토리), 원전
증시 위험 요인	기업 실적 둔화	경기침체 강도, 기업 실적 둔화, 연준의 최종금리 레벨 상향	스태그플레이션 심화	부동산 경기 하강 악영향, 자금경색 지속 여부	경기침체 지속	경기침체 지속, 기업 실적 둔화	미·중 갈등, 부동산 PF 디폴트 사태	부동산 PF 디폴트 사태, 기업 실적 둔화	스태그플레이션 심 화, 신용위험 확대로 인한 금융 시스템 리 스크 전이	인플레이션, 긴축 후폭풍	최종 금리 수준 도 달 여부, 상반기에 몰린 회사채 만기

2023 증시 전망

◆코스피, 상저하고…“자금경색, 기업 실적 둔화 우려”

지난해 코스피 지수는 2900선에서 출발했으나,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와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며 2200선에서 하락 마감하는 ‘상고하저(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낮아짐)’의 흐름을 보였다. 올해 증시 전망에 대해서도 하이투자증권을 제외한 10곳의 증권사가 상저하고를 전망했다. 코스피 지수 예상 밴드 하단은 2000, 최상단은 2750으로 제시했다.

부동산경기 악화, 자금경색 지속 소비 둔화 등 기업실적 부진 예고

증권사 10곳 코스피 ‘상저하고’ 전망 지수 예상 밴드 2000~2750 제시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022년 초부터 조정장세를 이어갔지만 유동성으로 인해 모든 것이 호황이었던 시기와 비교했을 때 아직 충분한 조정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연초 이런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프라이싱(가격 책정)이 진행되며, 증시는 최악의 상황을 겪은 후 반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주당 순이익(EPS) 추정치 하락폭과 기간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EPS 추정치는 내년 2분기 말~3분기 초 저점을 형성하며, 지수 연 저점은 이익 저점 직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증시 위험 요인으로는 부동산 경기 악화와 자금경색 지속 여부, 기업 실적 둔화 등을 주로 꼽았다.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023년 부동산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아파트 미분양률이 상승할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

낸싱(PF) 사업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일부 사업성이 낮은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중심으로 투자 선호도 재악화가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고금리 환경 여파로 부동산 시장 내 자금 흐름이 막히면서 일부 업체들의 도산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라며 “게다가 글로벌 수요 둔화로 한국의 수출이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또 내수 소비도 회복세가 지연되는 상황이라 기업실적은 당분간 저조한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연준(연방준비제도·Fed)의 최종금리 수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창용 센터장은 “미 중앙은행의 정책변화와 기업이익 변화를 가장 주목해야 한다”며 “주식시장 반등을 위해서는 금리 하락이 절실하다. 연준 통화정책 전환 여부와 시점이 변수인데, 2023년 2분기가 최종금리 도달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 직전에 주식시장 반등을 모색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코스피 상승 기회 요인에 대해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국내외 긴축 및 금리 인상 압력 완화와 중국 등의 코로나19 방역 정상화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투자 유망 업종은?

2023년 투자 유망 업종으로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이 꼽혔다. 올해 중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하며, 주가가 하락해 매수 타이밍으로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단, 본격적인 주가 반등은 하반기부터 이뤄진다는 전망이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시가총액 최상위 업종인 반도체의 경우 2023년 하반기부터 한국 증시의 본격 반등세에 집중적인 수혜를 받을 업종이다”며 “이차전지는 지난해 11월 이후 테슬라발 악재, 밸류에이션 부담 등으로 주가 조정 국면에 있었으나, 이로 인해 매수 관점에서의 진입 매력력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장기 실적 성장성이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태동 센터장은 “반도체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 중심축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수혜가 예정된 분야이며, 현재 반도체 업황 다운사이

클로 인해 가격 부담이 크지 않다”며 “메모리 반도체 다운사이클은 올해 2분기 저점을 찍고 3분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는 업황에 6개월가량 선행하므로 반도체 관련 업체 매수 적기는 지금”이라고 밝혔다. 이어 헬스케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도 유망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역사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에서 수축 국면이 진행되는 경우 저변동성과 가치주, 고배당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유종우 센터장은 “상반기에는 고금리 환경에서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은행주에 주목해야 한다”며 “경기 침체국면이 지속되므로 음식료, 건강관리 등 경기방어주에 대한 관심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본격적 주가 반등 하반기부터 예상 유망업종 반도체·이차전지 등 꼽아

금리상승 국면 레버리지 투자 지양 인컴자산 늘리고 성장주 분할 매수

서철수 센터장은 “상반기에는 침체 우려로 경기 민감 섹터들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등 경기와 큰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면서 금리 하락의 도움을 받는 업종이 선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외에도 황승택 센터장은 로봇(AI, 스마트팩토리)·원전을, 윤창용 센터장은 수출주(조선, IT가전, 기계, 자동차, IT하드웨어)와 방어주(통신, 필수소비재), 김형렬 교보증권 센터장은 배터리, 이차전지, 소재, 바이오·제약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레버리지 이용한 투자 지양·분할 매수 추천’

전문가들은 하락장 속 대체 투자처로 예·적금, 채권, 금(金), 달러 등을 추천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기간에는 주식 투자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인컴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여유자금으로 성장주를 분할 매수 하라는 조언이다.

황승택 센터장은 “현재 유망한 투자처를 찾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내 투자금을 지킬 수 있는 방향이 유리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예·적금과 우량한 기업의 단기 회사채 매수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서철수 센터장은 “장기적·자산관리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하며, 국내외 우량자산 분산투자가 정석”이라며 “금리가 고점에서 하락하는 구간이므로 연초에는 채권 등 인컴자산 비중을 늘리되, 주식이 상승 국면으로 전환 조짐을 보이면 주식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근창 센터장은 “하반기부터 한국 및 글로벌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채권 금리도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금리 투자 매력 및 채권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한국 국채 10년 물’에 주목하라”고 밝혔다.

또 주식의 경우 변동성을 활용한 분할 매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유종우 센터장은 “이례적인 금리 상승 국면에서 자금 조달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재무적으로 건전성을 확보한 우량 종목과 산업 내 1등 종목에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풍문에 따라 투자하기보다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종목에 접근할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오태동 센터장은 “아직 경기침체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으며, 한계기업들의 신용리스크 부각 등 잔존한 불확실성이 남은 상황에서 일정 부분의 여유자금은 가지고 있는 편이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용이할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채권, 하반기에는 주식 비중 확대를 권고하되, 여유자금을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연우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당분간 유동성 중심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만 2분기 이후에는 한국 주식 30%, 신흥국 주식 10%, 미국 주식 20%, 리츠 10%, 회사채 20%, 장기국채 10%로 분산해 투자자산을 다각화하고,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변동성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난의 한해’ 하반기까지 집값 하락… 분양시장 양극화

2023 부동산 전망

매매가격, 전세가격 하락 ‘역전세난’
‘법원 경매 물건’ 하반기 투자상품 추천
실수요 위주로 주택시장에 접근해야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필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2023년 하반기까지 집값 하락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계묘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경기 위축 우려가 겹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진다는 것. 부동산 투자 상품에 대해 올 하반기쯤 법원 경매 물건을 추천했고,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선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3년 집값 5% 이상 떨어질 것”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경기 위축 우려가 겹치며 주택 매매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급매물 위주의 간헐적 거래만 연결돼 평년보다 저조한 주택 거래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전세 대출이자 부담으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변경되고, 거래 절벽으로 주택 매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매도 매물의 전세 물건 전환이 이어지며 임대차 시장에서도 가격 하향 조정이 진행될 것”이라며 “아파트 분양시장은 전매차익 기대 약화와 중도금 집단 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1순위 청약 경쟁률과 총 청약자가 감소하는 등 분양시장이 양극화되고 관련지표도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해 부동산 시장은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며, 가격 하락폭은 상반기에 크겠지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하락폭이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금리가 상승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의 규제 완화가 큰 효과가 없겠지만, 금리인상이 멈추고 하락이 시작되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역별, 물건별 차이는 있겠지만 약 15~20% 정도 하락이 예상된다”면서 “비아파트 부분인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까지 합치면 4~5%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월세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 서울 아파트값(1~11월)은 4.89%(누적) 하락하면서 2012년 1~11월(-6.05%) 이후 최대폭으로 떨어졌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 전국 아파트 기준 매매·전세 모두 5% 안팎 하락 전망됨.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경기 위축 우려가 겹치며 주택 매매가격 하락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역별, 물건별 차이는 있었지만 약 15%~20% 정도 하락 전망됨. 비아파트 부분인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까지 합치면 4~5%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	올해 부동산 시장은 고난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됨. 장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 금리 급등, 매수심리 위축으로 하락세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외부요인을 국내 정책의 변화로 상쇄시키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지금 같은 하락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2023년 부동산 투자 유망 상품 무주택자는 분양시장 청약이 유효할 전망이나 시중의 급매물 및 경매 등과 비교해 가성비를 따져볼 필요 있음.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영끌이나 갭투자자들의 물건이 경매시장에 나오면서 경매시장이 투자 유망으로 분류될 수도 있음.	경기 침체에 고금리 태풍까지 겹쳐 올해 하반기에는 법원 경매 물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	자금여력이 있다면 각 주체별로 투자여건 오히려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됨. (고금리를 주는 금융상품에 예치했다가 적절한 투자처와 가격대를 맞춰서 매입하는 방법 등)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제언 변동금리부 차주의 고정금리 대한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이나 특례보금자리론의 이용자 확대를 검토할 필요 있음.	가격이 상승할 때는 규제를 완화하면 오히려 투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때 시장 정상화와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함.	주택가격 하락으로 일부 광통전세, 역전세난 우려.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대비책 세워야 할 것.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목표로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더불어 서울·수도권의 규제지역 해제 등이 실행된다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에 반영될 것.

다.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올해도 5% 이상 주가 하락이 진행된다면 2년간 집값은 10% 이상 떨어지게 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부동산 시장은 고난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장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 금리 급등, 매수심리 위축으로 하락세가 불가피하다”면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역전세난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침체기 부동산 투자는?

채권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달이나 내달쯤 기준금리를 현 3.25%에서 3.5~3.75%로 인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자 상품에 대해 조언했다.

함영진 랩장은 “급매물을 매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는 있으나 급할 것은 없다고 본다. 기준금리가 오르고 경기 위축 가능성이 큰 편이라 주택 구입 시기의 적절성보다는 주택가격 대비 자기자금 비율 및 상환 가능한 수준에서의 여신(대출) 비율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주택자보다는 무주택자 또는 실수요 위주로 주택시장에 접근해야 한다. 무주택자는 분양시장 청약이 유효할 전망이나 시중의 급매물·경매 등과 비교해 가성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교수는 “투자 유망상품은 없다. 다

만,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영끌이나 갭투자자들의 물건이 경매시장에 나오면서 경매시장이 투자 유망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면서 “투자 유효 상품을 찾자면 정부가 1가구 2주택 허용을 하면 그래도 미래가치가 있는 재건축, 재개발지역 물건과 소규모 정비사업지역의 상품 투자가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경기 침체에 고금리 태풍까지 겹쳐 올해 하반기에는 법원 경매 물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가급적 급매물 중심으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는 자산만을 중심으로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 흐름을 잘 읽고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두에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자금 여력이 있다면 각 주체별로 투자여건은 오히려 더 좋아졌다”면서 “시장분위기를 부정적으로만 간주할 필요는 없다. 무리한 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일부 영끌족들은 원리금 상환이 곤란해질 수도 있지만 이들이 전체 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만큼 절대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시기일수록 본인의 포지션을 정돈하고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제적 규제완화 필요”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멈추기 위해선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

후 이뤄진 부동산 규제완화는 사실상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한시 배제,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 세제 정상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등이 제시되긴 했지만 막상 현실로 옮겨진 것은 찾기 어렵다”면서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목표로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더불어 서울·수도권의 규제지역 해제 등이 실행된다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랩장은 “주택시장의 빠른 회복이 쉽지 않다면 정부의 정책 대응, 규제완화 방침도 저성장, 저거래 시대 변화에 맞는 정책 카드가 필요하다. 변동금리부 차주의 고정금리 대한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이나 특례보금자리론의 이용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일대의 폭넓은 규제지역 해제와 취득 및 양도단계의 세금 중과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전매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과도한 거래규제도 완화해 주택경기 호황기에 집값 조절수단으로 활용한 정책들의 빠른 제도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권대중 교수는 “가격이 상승할 때는 규제를 완화하면 오히려 투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때 시장 정상화와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규제완화와 제도는 사전적 대책이 필요하다. 사후대책은 효과도 적지만 뒷북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수출 신기록에도 에너지가격 폭등에 무역적자 ‘역대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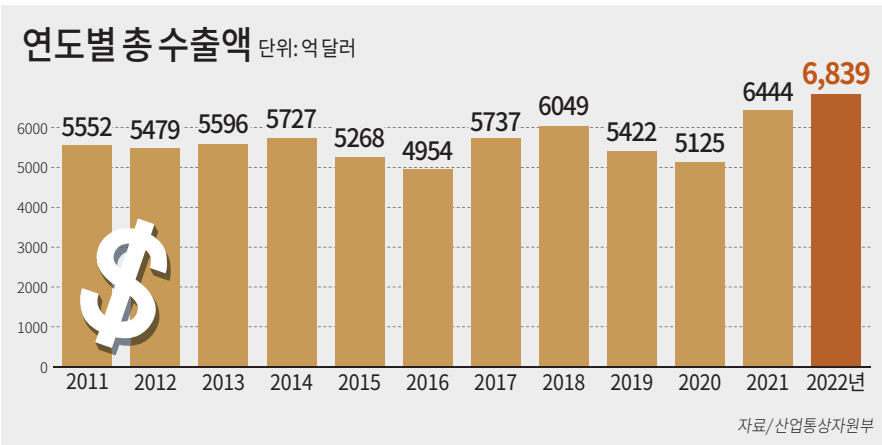
14년 만에 무역적자 기록
지난해 수출 6839억달러
에너지수입 784억달러 ↑

지난해 사상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도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수입액이 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472억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연간 및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6839억달러, 수입은 18.9% 증가한 7312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무역수지가 연간 적자를 기록한 건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132억 6000만달러) 이후 14년 만이다. 적자 규모 역시 기존 역대 최고였던 1996년(206억2000만달러) 기록을 2배 이상 많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악재에도 사상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했으나,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수입 증가폭이 수출 증가폭의 3배를 넘으면서 무역 적자를 냈다.

실제로 작년 에너지 수입은 1908억달러로, 전년대비 784억달러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를 300억달러



가량 상회하는 수준이다.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은 전년 대비 784억달러 증가한 1908억달러로, 무역적자 발생에 핵심요인으로 작용했다.

에너지 외 산업생산에 필요한 알루미늄·구리, 반도체·철강 등 원부자재, 의류·쇠고기 등 소비재도 고르게 증가해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지난해 무역 규모 대비 무역적자 비중은 3.3%로 과거 가장 큰 무역적자가 발생한 1996년(206억달러, 7.4%)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일본과 독일 등 주요국 대비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세계 수출순위는 1~9월 기준 2021년 7위에서 6위로 한 계단 뛰어 올랐다.

인플레이션과 주요국 금리인상 등 영

향으로 글로벌 경기둔화 흐름이 본격화되면서 10월 이후 수출이 감소했지만 1~9월까지의 해당 월 최고 수출실적을 기록해 연간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일평균 수출액도 25억1000만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연단위에서 일평균 수출 25억달러대에 진입했다. 수출입 모두 증가하며 무역액 1조달러 기록도 최단 기인 지난 9월13일 달성했다.

산업부는 “주력 품목과 신산업·유망 품목이 고르게 증가하며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성공한 것”이라며 “특히 반도체·자동차·석유제품·이차전지 등 품목은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7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기록하면서 하반기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최고실적을 경신했고, 자동차 수출은 차량용반도체 수급개선과 친환경차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7월 이후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석유제품 수출은 고유가 영향으로 7개월 연속 50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호황이 지속되면서 역대 최고실적 경신, 2위 수출 품목으로 도약했으며 이차전지 수출은 선진시장 친환경 정책에 따른 전기차 수요확대 등에 힘입어 두 차례 성장에 성공했다.

시스템반도체·전기차·OLED 등의 품목은 수출이 증가하는 한편 상위품목 내 비중도 확대됐고, 농수산물 수출도 2년 연속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올해 수출성장에 기여했다.

지역별로 중국·독립 국가 연합(CIS) 외 주요 지역 수출이 고르게 증가하며 특정국 수출의존도가 완화됐다. 4월 이후 중국 경제성장 둔화, 하반기 이후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하락 등의 영향으로 기존 최고실적인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아세안은 2년 연속 최고 수출실적을 경신했고 미국 수출도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차 확대,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등과 연계된 자동차·이차전지·기계 등 수출증가로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러·우 전쟁발 에너지 수급불안 등으로 유럽연합 경기 전반이 둔화됐음에도 철강·석유제품 등 수출증가에 힘입어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했으며 인도도 내수 전반 상승세, 통신·도로 등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무선 통신·기계 등 수출이 증가하며 전년에 이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지난해 수출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사상 최고실적을 기록했다면서도 “다만, 에너지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입 급증 등 영향으로 큰 폭의 무역적자가 발생한 것은 우리 경제에 부담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10월 이후 수출도 감소를 보이는 만큼 관련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올해 더 어려운 여건이 예상되는 바, 복합위기를 돌파하고 수출 플러스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중심으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가동하는 한편,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와 ‘수출 캐러반’을 통해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한 빈틈 없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올 ‘중진기금’ 10조… 위기대응·성장지원

인천공항에 中企 전용 물류센터 구축
베트남에 고비즈코리아 모델 전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2023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규모가 10조원을 훌쩍 넘었다.

중진공은 올해 중진기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조 239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22년 중진기금 본예산 9조 6618억원보다 5780억원(6%) 증가한 규모다. 복합위기 장기화에 선제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관 역할 강화에 중점을 뒀다.

중진공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융자방식의 정책자금 4조 1769억원과 더불어 797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을 신규로 지원함으로써 민간금융을 유입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금리부담 완화에 나선다.

또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의 재해피해기업에 대해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89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수출 중심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물류바우처 예산을 180억원으로 전년 대비 80억원 증액하고, 수출 전 단계를 지원하는 풀필먼트 지원예산을 76억원으로 26억원 확대 편성했다. 특히 전자상

거래, 전기전자, 의료·바이오 등 중소벤처기업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공항 내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예산 252억원을 편성했다. 오는 2024년 하반기 본격적인 운영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B2B수출플랫폼인 고비즈코리아 모델을 베트남에 전수하는 ODA(공적개발원조)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우수기업 추천 및 정보교환 등을 통해 국가 간 교역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 일몰에 대응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예산 198억원도 새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연간 1만 5000명을 신규로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bada@

과기부, 미래 핵심기술 선점에 6.7조 투자

전년 6조 4161억 比 약 3.9% 증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6조 6726억원을 투자하는 ‘2023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 5조 2418억원, 정보통신방송기술(ICT) 분야 연구개발 예산 1조 4308억원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예산은 전년 6조 4161억원대비 약 3.9%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미래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과학 및 정보통신 기술의 현장 확산을 위해 3대 분야 10대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해 총 6조 6726억원을 지원한다.

먼저 미래 핵심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시스템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 전략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하고, 인공지능 및 5G·6G 등 디지털 혁신 기술 개발과 디지털 혁신기술의 경제·사회 융합 및 확산을 중점 지원한다. 또한 누리호 3차 발사와 다목적 실용위성 7호 발사를 성공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한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에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총 2조 132억원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첨단원천유망유망기술 개발에 45억원, 양자기술 개발에 71억원을 투자한다.

/채윤정 기자 echo@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공기관 예타 면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의결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대응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 제5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부가 국토교통부에 특화단지 조성시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국내 투자를 촉진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해 입지·전력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시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토록 했다.

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문인력양

성도 강화한다.

인력양성 사업대상을 현행 계약학과를 포함해 이공계학과·직업계고 전반으로 확대해 첨단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산업계의 전문인력이 대학의 교원으로 이동해 현장의 지식이 대학에서 교육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교원은 기업의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원의 겸임·겸직, 휴직 허용 특례 등을 신설한다.

또 전략산업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정원 조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동방·세방 등 6개 운송사업자 제재

특수 장비나 숙련된 하차 인력이 필요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장기간 입찰 담합을 해온 6개 운송사업자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중공업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 간 발주한 총 510건의 변압기 등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한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등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법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9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동방(3억4900만

원), 세방(3억6300만원), 한일(3억3100만원), 케이씨티씨(1억7300만원), 사림중량화물(7500만원), 창일중량(1억300만원) 등이다.

이들 6개사는 효성중공업이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 방식을 기존 수의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출혈경쟁을 피하고 기존 운송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이 이뤄진 운송용역 입찰은 중량물과 경량물로 나뉘는데,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등 4개사는 총 10년간 6종 332건의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별종’이 ‘별 것’ 되는 시대… 유통가 ‘이색’ 훑아보기

유통가에 ‘이색’이 쏟아지고 있다. 전에 본 적 없는 서비스와 생각 못 해본 조합의 상품들은 특이함으로 입소문을 얻기 쉬울 뿐만 아니라 운이 좋다면 SNS 인증샷 대란까지 기대할 수 있다. 올해도 과감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들의 몸부림을 살펴본다.



1억 리무진, 3캐럿 다이아 파는 ‘편의점’ 이종업계 컬래버로 고객 발길 잡는다

◆편의점에서 사는 BMW?

유통업계가 일제히 설 명절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시작한 후 가장 눈길을 끈 곳이 바로 편의점 업계다. 편의점 4개사는 앞다퉈 수입차부터 고급 유모차, 보석 등을 선물세트 예약 카탈로그에 올렸다.

각사에서 내놓은 초고가 이색 선물세트는 ▲GS25 컬트와인 샤또르팡2014(900만원) ▲CU 카니발 하이리무진(1억 2000만원) ▲세븐일레븐 샤또 페트뤼스 2017(2200만원)·유모차 에그2(150만원) ▲이마트24 3.27캐럿 다이아몬드(5990만원)·벤츠 E클래스·BMW5 등이다. 실제 구입까지 이어질지 의문을 표하는 이들도 있지만 지난해 추석, CU가 내놓은 이동형 주택과 세븐일레븐의 900만원대 위스키 시리즈 등이 판매된 바 있다.

편의점 이색상품 ‘홍보효과’ 톡톡
지난추석, 900만원 위스키 판매도

SNS인증샷에 스몰럭셔리 트렌드
킹스베리 등 앞다퉈 ‘이색과일’ 도입

이마트24 프리미엄 콘셉트 팝업
‘24BLACK’ 2주간 방문객 1.4만명

편의점 업계가 이색 상품을 내놓는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 관계자들은 단연 ‘홍보효과’를 꼽는다. 편의점 업계는 매년 명절 수백 종에 이르는 선물세트를 판매 중인데, 전통적인 명절 선물세트 판매처로 인식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비해 고객들의 인지가 약하다. 이색 상품들은 선물세트 판매를 고객에 인지시키는 데에 확실한 역할을 한다는 전언이다.

◆이색 과일로 ‘밴드웨건 효과’ 노려라
샤인머스켓, 킹스베리 등 이색 과일은 온라인을 통해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며



편의점 업계는 올해 설 선물세트 상품으로 수백만원대 양주부터 1억원대 외제차까지 ‘이색’ 설 선물세트를 쏟아냈다. /BGF리테일



동아오츠카 오로나민 C 팝업 행사 부스에 사람들이 몰려있다. /동아오츠카

유행이 형성되고 SNS에 ‘인증샷’을 게재하는 트렌드 속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신상품 국산 과일이나 국내서 흔히 접하기 어려운 수입 과일을 통틀어 이색 과일로 지칭한다.

GS더프레시가 지난해 과일 매출을 분석한 결과 이색 과일류의 매출 구성비는 2019년 48.7%에서 지난해 60.4%로 집계돼 전통 과일류를 앞섰다. 특히 이색 과일의 대표적인 샤인머스켓의 매출은 전체 포도 중 71%를 차지했다.

이색 과일 인기가 높아지면서 업계는 앞다퉈 신상품 과일과 수입 과일을 소싱 중이다.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현상)를 노리는 것이다. 이마트는 국내에서 맛보기 힘들었던 호주산 칼립소 망고를 판매하기 위해 3일 이내 도착하는 항공운송

을 활용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통적인 과일과 다른 외형인 이색 과일은 SNS ‘인증샷’ 대란을 일으키기 쉬워 더욱 빠르게 입소문이 퍼지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 나 자신을 위한 작은 사치를 즐기는 ‘스몰 럭셔리’ 트렌드까지 더해져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팝업스토어의 변신은 무죄?

지난해 6월 이마트24가 서울 삼청동점에 꾸민 팝업스토어가 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편의점사가 일반적으로 컬래버레이션(협업)하던 식음료기업이나 캐릭터상품 브랜드가 아닌 MMORPG ‘검은사막’과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과 손잡았기 때문이다. 이마트24는 팝업스토어를 프리미엄 블랙 콘셉트로 꾸며 간판까지 ‘24BLACK’으로 바꿔 달았다. 팝업스토어 24BLACK은 전에 없던 이색

컬래버로 운영 2주 간 누적 방문객 수 1만4000명을 기록했으며 주말 하루 동안 1800여 명이 방문하는 대성공을 거뒀다.

엔데믹으로 전환한 후 팝업스토어는 브랜드와 산업군을 불문하고 대성황을 이루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팝업스토어 열풍 속에서 각 브랜드는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어졌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열린 팝업스토어는 ‘인스타그램able(Instagramable)’한 공간 디자인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이색으로 인기몰이 성공? 논란 따르기도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9월 신제품 ‘처음처럼 새로’를 출시하며 캐릭터 ‘새로 구미’를 공개했다. 구미호이자 간 전문의 캐릭터 새로구미가 주인공인 애니메이션 영상을 공개되자 반응은 뜨거웠다. 과거 주류에서는 시도된 바 없는 세계관 마케팅에 관심이 쏠려졌다. 9월 말 공개한 첫 번째 영상의 조회수는 850만 회를 바라보고 있다.

쏟아지는 관심과 함께 비판 여론도 터져나왔다. 수제맥주업체 카브루가 자사 상품 대표 캐릭터로 ‘구미호’를 먼저 내놓았는데 이를 롯데가 콘셉트를 부당하게 가져왔다는 것이다.

롯데칠성음료 측은 “향후 글로벌 소주 브랜드로 도약하려는 계획이 있어 한국 대표 캐릭터 중 하나를 내세운 것”이라며 표절 의혹에 선을 그었다. 주류 광고 캐릭터임에도 간 전문으로 설정돼 소비자의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는 논란도 있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라면·햄·과자·만두 등 'K-푸드' 해외로, 해외로

식품업계, 지구촌 입맛 잡는다... 해외사업으로 불황 타파



농심 미국 제2공장에서는 신라면이 생산돼 나오는 모습.

/유투이미지

베트남에서 고객이 오리온 현지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세계로 뻗어가는 K-푸드

식품업계가 불황에도 K-푸드 인기에 힘입어 외형 성장에 섰지만, 2023년에도 정체된 내수시장보다 해외 사업에 사활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초부터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국제 곡물과 식용유의 가격을 끌어올렸고, 앞친 데 덮친 격으로 환율까지 높아져 식품기업들은 그야말로 힘겨운 한해를 보냈다. 그럼에도 2022년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을 살펴보면 수익성 방어에 성공한 모습이 다. 해외 사업 확대가 실적을 견인한 것.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 77억 7000만 달러 대비 4% 증가한 80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연말까지 기록을 집계하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출액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농식품 수출액 최고치는 2021년에 기록한 85억 6000만 달러다.

주요 식품 기업들은 해외 현지 법인 및 공장을 짓는 등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단행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초 베트남에 지은 식품생산기지인 키즈나 공장을 본격 가동했으며 오는 2025년까지 추가설비 등에 1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베트남뿐 아니라 일본, 동남아시아, 유럽 등에 수출하는 물량 생산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CJ제일제당의 해외 식품 매출은 지난해 3분기까지 3조 7700억원을 달성, 2022년 한해 누적 5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농심은 지난해 3월부터 북미 지역 제2공장을 가동했다. 제2공장의 가동은 북미 지역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농심의 북미 지역 법인(미국·캐나다법인)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대비 23% 성장한 4억 86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동원 농심 회장이 미국 제2공장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올해에도 원재료 가격 상승과 환율 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익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미국, 중국 현지 법인과 그외 지역 수출 등 해외매출에 역량을 더해 수익성 회복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재료값 상승 등에 내수시장 정체 해외사업 확대해 수익성 회복 박차 현지 법인·공장 설립해 생산 확대

농심, 2025년 북미 라면시장 1위 목표 오뚜기, 글로벌 인플루언서와 마케팅 오리온·롯데제과, 생산·라인업 확대

농심은 2025년까지 북미시장에서 8억달러 매출을 달성, 일본을 제치고 미국 라면시장 1위로 오르겠다는 목표도 밝힌 바 있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5월 밀양공장을 준공해 수출용 제품 생산 능력을 50% 향상시켰다. 또한 각 국가별 맞춤 불닭 신제품을 선보

이며 해외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3분기까지 해외 누적 매출은 4505억원으로 집계되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72.0% 늘어난 수치다.

오뚜기는 신규 해외시장 개척,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을 통해 ‘글로벌 오뚜기’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0년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오뚜기는 메인스트림 유통 채널에 품목 수를 확대, 수출 다변화를 꾀하며 현재 70개국 약 2000억원의 수출 실적 달성을 앞두고 있다.

이같은 성과는 해외 영업부서 인력을 늘리고 국가별 특징에 맞는 제품을 개발한 것이 주효했다. 최근 오뚜기는 베트남을 주목하고 있다.

‘오뚜기 베트남’은 2010년 1월 공장 준공 후 2013년에는 80억원, 2021년 45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으며, 거러 지역도 경제 중심도시인 호치민과 수도 하노이, 중부의 다낭 등 거점도시 중심에서 점차 그 폭을 넓혀가고 있다. 2018년에는 베트남 하노이 인근의 박닌공장을 준공, 그해 6월부터 진라면, 열라면, 북경짜장, 라면사리 등 다양한 오투기라면을 생산하고 있다. 오뚜기는 대표 상

품인 ‘진라면’의 브랜드 확장을 위해 글로벌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으며, 국가별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라이브커머스도 진행하고 있다.

오뚜기 측은 “2억불 수출의 탑 수상’을 목표로 리테일 시장 외 케이터링, 온라인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며 “중화권과 동남아시아, 유럽 등 각 지역의 소비 트렌드 및 소비자 특성을 반영한 마케팅 활동을 적극 전개해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롯데제과와 합법한 롯데제과는 기존 수출 유통망을 활용해 롯데제과의 인기 제품인 캔햄을 싱가포르, 대만, 홍콩,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 본격 출시했다. 최근 단행한 인사에서 LG생활건강에서 북미 사업을 이끌어온 이창엽 전 LG생활건강 사업본부장을 신임 대표로 영입한 것도 해외 사업 확대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초코파이와 빼빼로 등 메가 브랜드 육성에 집중해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며, 현지 브랜드 슬림화를 통해 수익구조도 개선할 방침”이라며 “기존 해외 거래선을 통해 롯데제과의 HMR, 냉동식품 등 판매 제품 카테고리를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리온은 2005년 법인 설립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연매출 4000억원을 돌파한 베트남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베트남 하노이 공장에 생산동을 신축하고, 호치민 공장 증축과 제3공장 건립도 추진해 생산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2022년은 현지 공장·시설 확대 등 기반을 다진 해였다면, 2023년은 확대된 생산력을 바탕으로 유통망과 마케팅 강화에 집중해 해외 사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익망을 다각화하면서 빠르게 사업 규모를 키우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운세보고 경품도 챙기세요”… 유통업계, 신년이벤트 ‘붐물’

CU ‘럭키 뉴 이어’ 프로모션
이마트24 ‘점심’ 컬래버 먹거리
롯데온 ‘퍼스트먼데이’ 행사 개최
SSG닷컴 ‘DAY 1’ 프로모션 실시
G마켓·옥션 17일까지 ‘설빅세일’

계묘년 새해를 맞아 유통가에서 이벤트트를 쏟아내고 있다. 신년 운세와 소원 빌기 등 신년을 겨냥한 이벤트가 쏟아지는 가운데, 경품 또한 크게 준비했다.

1월 1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업계는 자사 앱(APP)을 연계한 이벤트를 대거 내놓았다. CU는 1일부터 신년 행운을 응원하는 ‘럭키 뉴 이어(LUCKY NEW YEAR)’ 행운 프로모션을 펼친다. 전국 CU 점포와 멤버십 앱 포켓CU에서 진행되며 경품 증정 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이벤트와 가격 할인 혜택을 선보인다.

먼저 검은 토끼의 해를 기념하며 행운의 토끼 스탬프 이벤트를 진행한다. CU가 지난달부터 출시하고 있는 토끼 상품을 구매하고 CU 멤버십을 적립하면 제품 1개당 스탬프 1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스탬프 3개를 모아 응모한 총 5000명의 고객들에게 선착순으로 CU



성수동에 위치한 이마트24 매장에서 모델들이 ‘계묘년 운수 대통’ 프로모션 관련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24

멤버십 2023 포인트를 지급한다. 행사 대상 상품은 미피, 토끼정, 이스터버니, 토끼소주 상품 23종이다. 토끼 스탬프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들은 미피 캐릭터 굿즈도 받을 수 있다.

이마트24는 1월 한 달간 국내 1위 운세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점심’과 컬래버레이션 한 먹거리 상품 10종을 속속 선보인다. 점심 협업상품은 삼각김밥과 샌드위치, 도시락 등 총 10종이며 새해 운세를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 스크래치가 부착돼 있거나 ‘신년 운세 카드’가 랜덤으로 동봉돼있다.

고객들은 신년 운세 카드 뒷면의 QR 코드를 통해 본인의 성향을 알아보고 맞춤형 부작 획득이 가능한 ‘나의 행운 부작 찾기’ 콘텐츠도 즐길 수 있다.

또 이마트24는 1월 한 달간 점심 협업 상품을 3개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000원 할인금액권 260매(1명), 5000원 할인금액권 130매(2명), 1500원 할인금액권 260매(4명), 5000원 할인금액권 1매(240명)를 증정한다.

인스타그램툰 ‘김토끼 스튜디오’ 협업 상품 14종도 출시하고 31일까지 현대가

드로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총 2023명을 추첨해 이마트24 금액권 1만원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온은 2일부터 8일까지 2023년 첫 퍼스트먼데이 및 브랜드픽 행사를 개최한다. 2일 진행되는 퍼스트먼데이에는 최대 20% 할인 쿠폰을 비롯해 추가 카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 기간 설 선물 세트를 구매하면 추가 할인 및 엘포인트(L.Point)를 적립해주며, 새해 소원 댓글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롯데모바일상품권 최대 100만원을 증정한다.

퍼스트먼데이 당일엔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최대 3만원 할인 쿠폰을, 롯데온 앱에서 구매할 경우 최대 2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롯데온에서 처음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최대 1만원 할인 쿠폰을 포함해 백화점, 마트, 슈퍼 상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꾸러미를 증정한다.

SSG닷컴은 4일까지 ‘DAY 1’ 온라인 전용 프로모션을 확대 실시한다. 메타버스, 라이브 방송 등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활용해 재미와 혜택을 더한 쇼핑 콘텐츠를 다채롭게 선보인다.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메타버썩 오픈런’을 열고, 달리기 게임에서 선착순 순위에 든 고객에게 ‘오쏘몰 이문’, ‘랑콤 땡 이돌 롱라스팅 파운데이션’ 등 인기 상품을 특가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재 라이브커머스 채널 ‘썩라이브’를 통해 매일 오전 11시, 오후 8시, 오후 9시 세 차례에 걸쳐 방송된다. 썩닷컴은 한국금거래소 골드바, USM 모듈가구, 다이슨 인기 가전 등을 판매한다. 선착순 장보기 쿠폰 수량도 두 배 늘렸다.

G마켓과 옥션은 2일부터 17일까지 16일간 ‘2023 설빅세일’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지난해 행사 대비 쿠폰 스펙을 확대하고, 특가 상품 수를 2배 이상 늘린 것이 특징이다. 일부 인기 상품의 경우 매일 밤 12시를 기준으로 업계 최저가에 도전한다.

티몬은 1일부터 24일까지 ‘2023 티나는 설날’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7일까지는 월간 프로모션인 ‘몬스터 세일워크’를 동반해 더 큰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연휴를 위해 필요한 상품을 특가 판매하는 ‘준비판’과 설 선물 카테고리 ‘선물관’, 인기 브랜드를 모은 ‘혜택&브랜드관’ 세가지 테마로 준비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브랜드 할인·경품이벤트… 신년 ‘쇼핑축제’ 개막

백화점업계 정기세일

롯데 시즌오프 패션 상품 집중 할인
신세계 쇼핑축제 ‘썩페스타’ 진행
현대 해피니스 테마 쇼핑 페스티벌
갤러리아 200개 브랜드 40% 할인

백화점 업계가 2일부터 15일까지 일제히 신년 정기 세일에 돌입한다.

롯데백화점은 시즌오프를 테마로 패션 상품군 할인에 집중한다. 먼저 남녀 패션, 잡화, 스포츠, 키즈 부문 등 전 패션 상품군이 참여해 10~50% 할인을 진행하며, 국내외 유명 의류브랜드의 2021년 가을, 겨울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시즌오프 행사를 준비했다.

대표 여성 패션 브랜드로는 ▲디루치아노 ▲씨씨컬렉트 ▲쥬시쥬디 등이 30% 할인되며, 남성패션에서는 ▲빈폴 ▲라코스테 ▲타미힐피거 등이 30% 할인된다. 더불어 ▲헤지스 ▲브룩스브라

더스는 20~30% 시즌오프 세일이 전개된다. 이외에도 신발, 스포츠, 리빙 브랜드 등에서도 할인행사가 준비돼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대규모 쇼핑축제 ‘썩페스타’를 진행한다. 경품 이벤트부터 최초 소개 팝업 스토어까지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신세계백화점 앱에서는 화면을 터치하면 새해 행운 메시지와 함께 경품이 응모되는 ‘포춘쿠기 이벤트’와 스탬프 출석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세계 운영 주얼리 브랜드 아디르의 다이아몬드와 순금 피규어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현대백화점도 같은 기간 전국 16개 전 점포에서 ‘2023 더 해피니스’ 테마로 ‘신년 쇼핑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이번 신년 쇼핑 페스티벌에서는 패션·잡화·스포츠·화장품 등 총 300여 브랜드가 겨울 시즌 신상품을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50% 할인해 선보인다. 해외 유명 브랜드의 F/W 시즌오프도 진

행된다. 톰브라운·발렌시아가·오프 화이트·폼데가르송 등 100여개 브랜드가 2022년 가을·겨울 상품을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50% 할인해 판매한다.

갤러리아는 명품 브랜드를 포함한 200여 개 브랜드를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한다. 서울 갤러리아명품관에서는 ▲피에리 ▲락앤본 ▲이자벨마랑 등 다양한 명품 브랜드들이 2022년 가을/겨울 시즌 상품을 정가가 대비 10~30% 할인한다. 또, 캐나다 프리미엄 패딩 브랜드 ‘무스너클’이 오는 29일부터 1월 8일까지 버니 컬렉션 신상품을 30% 할인 판매한다.

갤러리아 광고에서는 ▲매종키즈네 ▲비이커 ▲산드로 등 유명 브랜드들의 일부 인기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12월 27일 신규 오픈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미우미우’ 매장에서 최신 컬렉션과 단독 상품 등을 선보인다. /김서현 기자

KGC인삼공사, 새해맞이 프로모션 마련

실속상품부터 최상위 천녹까지… 혜택 ‘평평’

25일까지 프로모션… 얼리버드 행사도

KGC인삼공사가 계묘년 새해를 맞아 1월 2일부터 25일까지 ‘새해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KGC인삼공사는 설명절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홍삼지분’, ‘여유랑편’, ‘진심편정성’, ‘활기력’, ‘알파프로젝트’, ‘굿베이스’ 등 실속제품부터 최상의 SAT등급 녹용을 사용한 ‘천녹’ 등 프리미엄 제품까지 구매 금액대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선물을 미리 준비하면 혜택이 추가되는 ‘얼리버드 행사’도 진행한다. 행사초기 일주일간(1.2~1.8) 정관장 제품을 10만원 이상 구매하면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정관장 포인트를 2배로 적립해준다.

정관장 멤버십 신규가입 고객에게는



5000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카오펀이, 네이버페이, KB 신용카드, 신한 앱으로 25만~50만원 이상 결제 시 1만~2만원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KGC인삼공사 정철 영업실장은 “새해가 되면 가족의 건강을 첫번째 소원으로 기원한다”면서 “예년보다 이른 설, 소비트렌드에 맞춰 실속형 제품부터 프리미엄 선물세트까지 다양한 혜택을 담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관장 ‘새해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프로모션은 전국 정관장 로드샵, 백화점 및 대형마트, 정관장몰 등에서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오유경 “규제혁신 2.0 추진… 수출지원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신년사 “전자심사 등 안전시스템 혁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사진)이 계묘년 새해, 새로운 위해 요인에 대비한 안전혁신과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규제혁신에 나서겠다고 1일 밝혔다. 2023년 식약처는 출범 10주년을 맞는다.

오 처장은 “디지털기술을 접목해 수입 식품 전자심사를 도입하고, QR코드 기반의 식품안전플랫폼 구축도 추진해 스마트 안전시스템으로 혁신하겠다”며 “마약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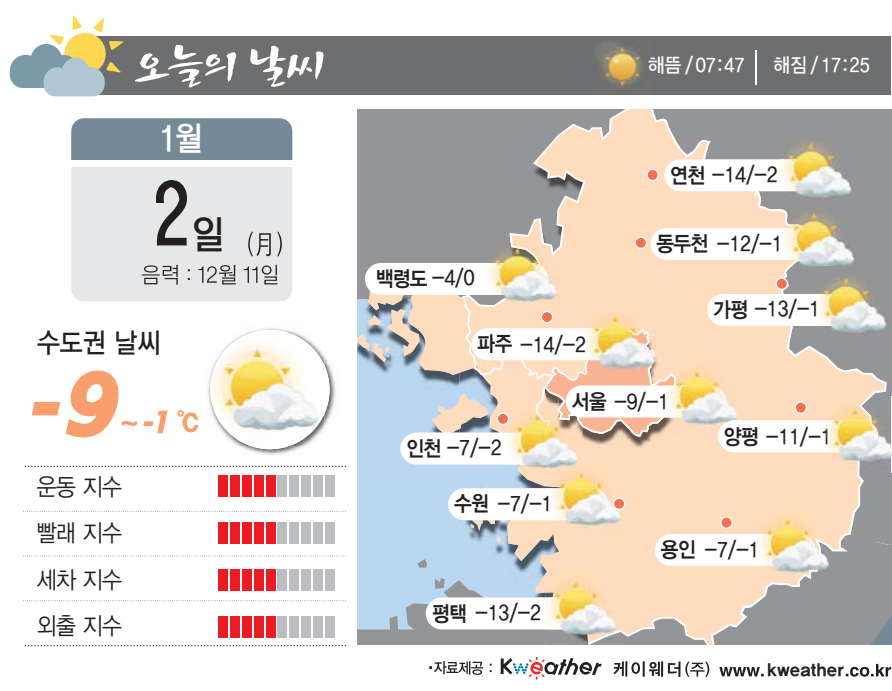
관리는 예방·재활 중심의 수요역제 정책을 강화하고, 위해성평가 본격 실시와 함께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국가관리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 2.0을 추진해 낡은 규제는 지속 해소하고, 새로운 환경에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잘 만들어우리 기준이 글로벌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이마트 ‘트레이더스 클럽’ 운영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이 ‘트레이더스 클럽’ 멤버십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은 지난해 10월 BI와 사명을 교체하며 멤버십 서비스를 론칭, 얼리버드 가입 프로모션을 열고 56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멤버십 서비스는 자체 적립 포인트 ‘TR 캐시’, 멤버십 회원 전용상품 구매권 등을 토대로 혜택을 구성했다. /김서현 기자



“세계 경제질서 붕괴… 대한민국 ‘원팀’ 돼 위기극복 해야”

경제 6단체장 신년사

이환위리(以患爲利)
고난을 극복해 오히려
기회로 삼는다.

금석위개(金石爲開)
어떠한 어려움도
굳은 의지로 이겨낼 수 있다.

환부작신(換腐作新)
썩은 것을 도려내어
새 것으로 바꾼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환위리, 금석위개, 환부작신. 경제계가 2023년 새해를 맞아 내놓은 신년사에서 강조한 사자성어들이다.

2023년 경제단체 신년사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 팬데믹이 안겨준 고통과 고금리·고환율을 중심으로 한 '3고(高) 복합위기'가 엄습해있다. 한국 경제는 올해 1%대의 성장률에 머물 전망이다. 해를 넘어서도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저성장, 미국·중국의 갈등을 비롯한 자국 중심의 정책과 높은 무역 장벽 등 대외 환경도 녹록치 않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은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다.

경제단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파도를 넘어서야 한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전했다. 한국 경제가 어려운 시절이 없었듯이 이번에도 반드시 넘어설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다. 특히 이를 위해선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 정치권 등 모두가 ‘하나’가 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획기적인 규제 개혁과 더욱 자유로운 기업의 투자·활동 보장, 경직된 노동환경 개선 등을 주문했다.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 등 경제주체들에게는 ‘도전’, ‘혁신’, ‘함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 경제 어렵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신년사에서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인 긴장이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 경제는 기존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기까지 상당기간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각종 경제지

표들은 견고하지 못하고 방향성에 대한 신뢰도 약해지면서 기업활동을 더욱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도 “2023년에도 대내외 경제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국가 간, 진영 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이른바 냉전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며 “국내외 경기둔화로 자영업자, 한계기업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커지고 글로벌 통상 환경의 악화가 수출중심의 한국경제에 큰 위협요인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올해에도 세계 경제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을 전망”이라면서 “지난 30년간 이어진 세계화의 흐름이 후퇴하며 상품과 투자의 흐름이 둔화되고 있고 미·중 갈등은 무역을 넘어 기술과 공급망 분야로 확산되고 자국 내 제조역량을 강화하려는 주요국 간 경쟁이 심화되며 국

가 간 분업과 협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원팀(ONE TEAM)’, 규제혁신, 도전정신

경제단체들은 당면한 거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기업과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원팀’이 돼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합심해야한다”면서 “국회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나라가 망할 것만 같던 IMF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절망은 용기를 이기지 못한다. 결국 희망이 이긴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 중소기업의 현장의견을 담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중소기업에 뿐만

아니라 경제단체 중 노사 문제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 경총도 화두로 제시했다.

김기문 회장은 “고용노동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고, 외국인력 쿼터를 폐지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회장은 “대기업 정규직 과보호에 집중된 제도와 관행은 노동시장의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해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를 해소해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매년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도 이제 상생의 관계로 바뀌어야한다”고 전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바라는 목소리도 어느때보다 높다.

허창수 회장은 “앞으로도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세계무대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규제개혁을 포함한 기업환경 개선에 적극 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언급했다.

최진식 회장은 “‘중견기업 특별법’ 일몰 폐지 및 내용 전면 개정 등 중견기업 경영 애로를 가중하는 수많은 법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도 잊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은 “어려운 분들을 보듬고 함께 밝은 미래로 가는 것,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발전해 가는 것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신(新)기업가정신’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 중소기업의 현장의견을 담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중소기업에 뿐만

아니라 경제단체 중 노사 문제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 경총도 화두로 제시했다.

김기문 회장은 “고용노동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고, 외국인력 쿼터를 폐지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회장은 “대기업 정규직 과보호에 집중된 제도와 관행은 노동시장의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해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를 해소해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매년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도 이제 상생의 관계로 바뀌어야한다”고 전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바라는 목소리도 어느때보다 높다.

허창수 회장은 “앞으로도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세계무대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규제개혁을 포함한 기업환경 개선에 적극 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언급했다.

최진식 회장은 “‘중견기업 특별법’ 일몰 폐지 및 내용 전면 개정 등 중견기업 경영 애로를 가중하는 수많은 법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도 잊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은 “어려운 분들을 보듬고 함께 밝은 미래로 가는 것,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발전해 가는 것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신(新)기업가정신’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 중소기업의 현장의견을 담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중소기업에 뿐만

아니라 경제단체 중 노사 문제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 경총도 화두로 제시했다.

김기문 회장은 “고용노동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고, 외국인력 쿼터를 폐지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회장은 “대기업 정규직 과보호에 집중된 제도와 관행은 노동시장의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해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를 해소해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매년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도 이제 상생의 관계로 바뀌어야한다”고 전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바라는 목소리도 어느때보다 높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새해 화두 ‘생존·혁신·성장’… 디지털화·컨버전스는 숙제

중소·여성 경제단체 신년사

“글로벌, 기업이 추구해야 할 방향
디지털경제, 경영 효율화의 열쇠”

“경제 지속성장·양질 일자리 위해
스케일업 통해 ‘허리’ 튼튼해져야”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이정환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중소기업·여성기업 관련 경제단체들의 2023년 새해 화두는 ‘생존’, ‘혁신’, ‘성장’이다.

이 과정에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디지털화’와 ‘컨버전스(융합)’는 큰 숙제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2023년 신

년사를 통해 “전 세계는 지금 기존산업과 디지털기술을 융합하는 디지털경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국가와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글로벌’은 출발점부터 우리 기업이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온라인·비대면 경험을 통해 많은 이들이 그 위력을 실감한 ‘디지털경제’는 경영효율화와 사업 다각화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병훈 이노비즈협장은 “지혜로운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판다”라는 ‘교토삼굴(狡兔三窟)’을 신년사에서 언급했다.

임 회장은 “연약한 토끼가 살아남기 위해서 항상 어려움에 대비하듯이 중소기업도 지혜가 절실한 시기”라며 “자신의 비즈니스를 디지털화해서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고, 최종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고, 소비자의 경험으로 진화되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지혜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은 “우리경제의 지속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스타트업도 중요하지만 성장사다리로 이어지는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해 저성장·대중소기업 양극화를

완화하는 허리가 튼튼한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이 요구된다”면서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확산을 위한 개별기업의 경영 혁신역량 강화와 함께 원활한 기업승계 및 M&A 활성화, 중소기업 간 협업 등 스케일업 생태계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정환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여성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인의 92% 이상이 일하는 것에 행복감을 느낀다고한다. 자기 일을 즐기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강하다”면서 “여경협은 ‘행복한 여성기업’이 만들어갈 희망찬 미래와 무한한 가능성을 위해 힘차게 달려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Krispy Kreme DOUGHNUTS × miffy



HAPPY
NEW YEAR
with MIFFY KRISPY
KREME



Illustrations Dick Bruna © copyright Mercis bv, 1953-2022

LOVELY RABBIT FOOT

MELON



Krispy Kreme DOUGHNUTS



SK이노베이션, 계묘년 첫 일출 온라인 생중계

2023년 1월 1일 계묘년 첫 일출 장관이 SK이노베이션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이번 생중계는 김세연 SBS스포츠 아나운서가 '부산 해돋이 현장'과 '실시간 화상 참여자'를 연결하는 3원(元)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했다. /SK이노베이션



대한항공, 3년 만에 새해 첫 고객맞이 행사

대한항공은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새해 첫 고객맞이 행사를 실시했다. KE012편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해, 오전 5시 1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유병호(51)씨가 계묘년 새해 첫 고객으로 선정됐다. 대한항공의 새해 첫손님 유병호(왼쪽)씨와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항공



카캠, 우마무스에 이용자와 환아 치료비 공동 기부

카카오게임즈와 환아 치료에 기부한 '우마무스에 프리티 더비(이하 우마무스메)' 이용자들은 최근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세브란스 재활병원에서 뇌병변 장애 환아 치료를 위한 기부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왼쪽부터) 카카오게임즈 안병도 대외정책실장과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기부참여 이용자 대표 김성수 씨, 서울 세브란스 재활병원 김용국 병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중기부

1월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판매

중소벤처기업부가 1일부터 신년을 맞아 온누리상품권을 특별 할인판매한다. 이번 할인판매는 소비심리 회복과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등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진행한다.

할인판매 기간 동안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한다. 아울러 1인당 월 구매해도 역시 지류는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카드 및 모바일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김승호 기자

넷마블 페이트/그랜드 오더 신년선물

넷마블은 모바일 RPG '페이트/그랜드 오더'에서 풍성한 혜택을 증정하는 '2023 신년 캠페인'을 오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넷마블은 1일 오전 4시부터 1월 4일 오전 3시 59분까지 게임에 접속하면 1회에 한해 성정석(게임재화) 30개를 증정하고, 매일 로그인 보너스와 함께 3일차 접속 시에는 희귀 아이템 '성배'를 제공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부음

▲김복심(90세)씨 별세, 민경천(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경모·경애·경희·경자 모친상, 김연순·구나겸 시모상, 김광욱·최수석·신병호 빙모상=1일, 해남현대장례식장 3호, 발인 3일 오전 9시. 061-537-2222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 선종... 전세계 애도 물결

생전 사임 보수파... 향년 95세 5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장례식 집전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이 31일(현지시간) 95세로 선종했다.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명예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오전 9시34분 바티칸의 마테아클레시아 수도원에서 선종했음을 슬픔 속에 알린다"고 밝혔다.

베네딕토 16세의 본명은 요제프 알로이지우스 라칭거(Joseph Aloisius Ratzinger)이다. 요제프 알로이지우스 라칭거는 1927년 4월 16일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바이에른 주 마르크트 암 인에서 경찰관인 요제프 라칭거와 식당 종업원이던 마리 아라칭거의 2남 1녀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다.

베네딕토 16세는 뇌졸중과 심장병 등 지병을 지니고 있었다. 베네딕토 16세의 전기를 쓴 작가인 존 앨런에 따르면 그는 1991년 뇌졸중 후유증으로 시력에 문제가 생겼으며 심한 현기증과 수면장애에 시달렸다. 교황으로 선출되기 오래전부터 심장박동기를 착용해왔다는 사실도 사임 직후 알려졌다.

◆제256대 교황 베네딕토 16세

2005년 4월2일 제264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선종했다. 그해 4월 19일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에서 라칭거 추기경은 78세의 나



1일 오후 명동대성당 지하에 마련된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새 교황 베네딕토 16세로 선출됐다. 베네딕토 16세는 당시 상황을 "마치 나에게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갑자기 현기증이 일어났다"라고 회고했다. 베네딕토 16세는 교황 하드리아노 6세(1522?1523) 이후 482년 만의 독일인 교황이다. 가톨릭 역사상 여덟 번째 독일인 교황이다. 베네딕토 16세는 2005년 4월 25일 일반신자들을 알현하던 중 자신이 베네딕토라는 이름을 선택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베네딕토 15세와 영적인 유대를 맺기 위하여 베네딕토 16세라 불리기를 원했다. 그분은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혼란의 시기에 교회를 이끄셨던 분이다. 그분은 용기 있고 진정한 평화의 예언자이다. 그분은 무엇보다도 대담한 용기로 전쟁의 비극을 막고 전쟁에 따른 불행한 결말들을 줄이고자 노력했다.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사람들 사이의 화해와 조화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저의 사목으로 삼고 싶다고 밝혔다.

◆스스로 교황 직을 포기한 교황

2000여 년 가톨릭 역사상 스스로 교황 직을 포기한 사례는 5명에 불과하다. 그중 베네딕토 16세 교황도 지난 2013년 2월 11일 스스로 교황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추기경회의에 제출한 성명을 통해 "하느님 앞에서 나의 양심을 거듭 성찰한 결과 고령으로 더는 교황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확신에 이르렀다"면서 "완전한 자의에 의해 추기경단이 나에게 부여한 성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직의 포기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 "나를 도와준 분들의 사랑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나의 부족함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앞으로의 삶을 기도에 전념해 신에게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17일후 홀연히 교황직을 물러났고 '명예교황'(emeritus pope)에 추대되었다. 교황이 생전에 사임한 사례는 1294

년 첼레스티노 5세 이후 719년 만의 일이다.

◆현 교황이 전 교황 장례식 집전

2000년 명예교황 장례식이 어떤 방식으로 치러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직 교황에 대한 장례 절차는 명문화돼 있지만, 그 절차가 명예교황에게도 그대로 적용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장례 절차는 5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장례 미사를 집전하면서 시작된다. 교황직은 종신직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현직 교황이 전임 교황의 장례 미사를 주례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이 사임 뒤 '어부(초대 교황인 예수의 제자 베드로)의 반지'로 불리는 교황의 인장 반지에 이미 'X'자를 새겨넣었던 만큼 이 반지를 그렇게 파기하는 절차는 생략된다.

교황은 사후 묻히고 싶은 곳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데,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전기 작가 피터 시월드에 따르면 그는 생전 전임 교황 대다수가 잠들어 있는 성 베드로대성전 지하 묘지에 묻히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역대 교황들은 초기 기독교를 이끈 초대 교황인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와 가까이 머물기 위해 그의 무덤이 있는 성베드로 성당을 선호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규춘 기자 ch9720@metroseoul.co.kr

계묘년 첫 “응애~” 새해둥이 3명 동시 탄생

여아 1명·남녀 쌍둥이 태어나

2023년 새해 첫 아기 3명이 동시에 탄생했다. 올 해는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처음으로 가족들과 아기의 대면 만남이 이뤄졌다.

계묘년 1월 1일 0시 정각 차의과 학대학교 일산 차병원에서 엄마 김현정씨·아빠 장동규씨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여아 짱순이(태명), 남아 짱짱이(태명)와 엄마 손은서씨·아빠 김정섭(39세) 사이에서 태어난 여아 복동이(태명)가 우렁찬 울음소리로 새해 시작을 알렸다.



2023년 새해 첫 아기 3명이 동시에 탄생했다.

짱짱이·짱순이 엄마 김현정씨는 "기다렸던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

나서 너무 대견하고 기쁘다"며 "아이 아빠는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오지 못했지만, 새해 첫 날 많은 사랑들의 축복 속에서 태어난 우리 쌍둥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랐으면 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복동이 아빠 김정섭씨는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 감격스럽고 건강하게 잘 자라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일산차병원도 출산의 기쁨을 전했다.

일산차병원 산부인과 김의혁 주치의는 "저출산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대면으로 소중하고 귀한 아기 탄생을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첫 아기의 탄생과 함께 출산의 기쁨과 생명의 소중함을 새해 첫 날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CJ대한통운,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선언

‘기후변화 대응 보고서’ 공개 車·시설 중심 중장기 전략 수립

CJ대한통운이 물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다.

1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목표와 핵심 전략을 담은 '기후변화 대응 보고서(CJ Logistics Net-Zero Report 2022)'를 물류업계 최초로 공개했다.

CJ대한통운은 보고서를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시키는 넷제로(Net-Zero)를 선언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ESG 전략을 발표했다.

CJ대한통운은 2030년까지 21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37%를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 앞서 온실가스가 주로 배출되는 사업 영역을 분석한 결과 물류사업 특성 상 화물차 등 운송수단과 물류센터 등 시설물에서의 전력 소비로 인한 탄소 배출이 각각 약 52%, 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 검토

를 바탕으로 CJ대한통운은 차량과 시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ESG 전략을 수립했다.

CJ대한통운은 운송 수단에서 발생하는 탄소는 친환경 차량 전환과 운송 효율화를 통해 감축 시켜 나갈 계획이다.

회사가 보유한 모든 차량을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한다. 연료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첨단 TES물류기술을 기반으로 최적경로 운송체계를 구축한다. 물류센터의 경우 전력 소비



CJ대한통운 직원이 기후변화 대응 보고서를 들고 미소를 짓고 있다. /CJ대한통운

가 온실가스 배출의 주 원인인 만큼 태양광 설비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도입하고, 기존 건물에는 건물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을 적용한다.

/김승호 기자 bada@

감당 안되는 빚, 회생제도에 길이 있다



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법인이든 개인이든 도산제도(회생, 파산)를 신청한다고 하면, 흔히 그 회사나 개인이 아예 경제적으로 재기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생각한다. 신청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보통 사업체나 스스로의 재정적 상태를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온갖 노력을 다 한 뒤에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돼서야 법무법인을 찾아 도산과 관련한 상담을 받는다.

물론 파산은 경제적인 재기가 불가능할 때 신청하는 제도가 맞다. 법원이 파산 및 면책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부채가 채무자의 자산이나 미래에 벌어들일 예상 수입이 너무 적어 채권을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인정돼야 한다. 따라서 월급 등의 일정한 수입원이 있어 장기간이 걸리더라도 장래에 채권을 조금이라도 더 분할 변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채무자들에게는 파산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고, 파산자의 지위 자체가 경제적, 사회적 활

동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일반적으로는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한다.

회생(回生)절차는 그 이름대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밟으려는 법인이거나 개인은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는 회생 절차 내에서 약 10년간 얼마의 수입을 얻어 채권자들의 채권 중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고 갚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머지 채권들은 면책시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이라는 것을 작성하게 된다. 이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로부터 동의(채무자회생법 제237조, 담보권자조 3/4이상, 채권자조 2/3이상)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회생절차를 유효적절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채권자들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았을 때 ▲회생절차의 진행에 드는 비용(법원 예납금,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하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남아있을 때 ▲현재는 아니지만 단기간 내에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전문

가를 찾아야 한다. 즉, 회생절차는 시야에 베풀 끝이 보이는 순간, 더 이상 베풀 끝으로 달려가지 않게 운전대 방향을 돌릴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다.

많은 채무자들은 아직도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도산 절차를 찾는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전문가만 잘 만난다면 회생절차를 신청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사례도 많다. 그러나 재정적 파탄 상태가 길어질수록 채권자들과 감정의 골이 깊어져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기 어려워지고, 수중에 시재가 남아있지 않아 예납금 등의 비용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진다. 무엇보다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종료 후에도 채무자는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미 경제활동으로 맺어진 다수의 채권자들과 감정이 좋지 않다면 미래의 지속적인 수입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선택의 여지없이 파산제도를 이용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혼자 힘으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이 힘에 부친다면 전문가를 찾아 도산제도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받을 것을 적극 권한다.

/법무법인 바른

뜨거운 감자 ‘공매도 논란’ 올해도 이어지나



기지 수첩

원관희
(자본시장부)

해가 바뀐 계묘년에 공매도 논란이 가라앉을까. 지난 한 해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등으로 침체국면이 심해지자, 공매도 폐지를 둘러싸고 개인과 해외 기관 간에 대결 양상이 나타났다. 개인은 불공정 거래의 하나로 공매도를 손꼽으며 폐지를 주장하고 해외기관들은 한국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매도의 전면 재개를 요구했다.

국내 증시의 공매도 규모는 무시 못 할 수준이다. 중단됐다가 지난해 5월부터 제한적으로 재개된 그 규모는 지난해 총 143조6910억원으로 2021년(96조9177억원) 대비 48.2% 늘어났다. 코스피 시장의 공매

도 규모는 2021년 대비 54.2% 증가한 110조790억원에 달했으며,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규모는 30.9% 늘어난 32조612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증시 하락을 점치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때문이다.

투자자 별로는 외국인의 비중이 가장 컸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전체 공매도의 71%를 차지한 반면 기관은 25.9%, 개인은 2.1%에 그쳤다. 코스닥 시장도 이와 별반 차이가 없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6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기관은 27.2%, 개인은 2.3%에 머물렀다.

통계 결과에서 보듯이 국내증시의 공매도는 외국인들의 놀이터라 할 수 있다. 결국 개인들에게도 외국인들과 공평한 기회를 줘야한다는 이야기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매도를 주도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라도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안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공매도 금지를 주장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에 불을 지피는 셈이다.

올해도 경기침체로 증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의 공정 거래를 해치는 공매도에 대한 폐지론을 이어갈 것이다. 물론 공매도가 증시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증시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 주장이 시기적절한 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었다. 어느 한쪽의 손을 선뜻 들어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공매도로 인한 시장의 불공정한 측면을 해결하는 노력은 이뤄져야 할 것이다.

/wkh@metroseoul.co.kr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을 높이는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파를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1				2	
	9	4				7	8
2				7			1
	5	7	3		8	6	4
9				4			2
	6	8				5	2
		5				4	

2		4	8		6	1	9
9			2		1		5
			1	3			
			5	7			
5			3	9			7
8		2	6		5	4	3

정답

8	9	1	5	8	2	6	7
8	6	7	8	9	2	5	1
2	2	9	7	1	6	8	9
2	2	8	1	7	9	9	8
6	7	9	8	2	8	2	1
1	9	8	6	2	9	8	7
5	8	2	8	1	7	6	9
7	8	2	9	6	8	1	5
9	1	6	2	5	7	2	8

8	1	7	9	2	9	2	6
2	6	9	8	1	7	2	9
2	9	8	6	2	8	1	7
1	8	2	2	9	9	6	8
9	9	8	2	7	6	8	1
7	2	6	8	8	1	9	2
9	7	2	1	8	2	9	8
8	2	9	7	6	2	8	1
6	8	1	9	9	8	7	2

과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쥐

오늘의 운세 1월 2일 (음 12월 11일) <http://www.saju4000.com>

소

36년생 복 많이 받으라는 축복의 마음을 전달. **48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혜택으로 돌아온다. **60년생** 불행에도 기회가 오니 기다려 보자. **72년생** 이유 없는 과도한 투자를 자제. **84년생** 힘을 기르는 에너지는 자기분야의 공부.

호랑이

37년생 내 발등을 찍는 것은 내 도끼이다. **49년생** 지나친 관심은 상대를 지치게 한다. **61년생** 소통과 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 **73년생** 자신이 가는 길이 최선이라 믿어야 한다. **85년생** 머리는 아프고 몸은 천근만근이니.

토끼

38년생 곧 서리가 내리니 얼음이 얼 것을 준비하자. **50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기부는 것도 좋다. **62년생** 조금함이 화를 부르니 느긋하게. **74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86년생** 선택이 잘못되어 슬프다.

양

39년생 아랫사람에게 한 칭찬은 큰 성과로 돌아온다. **51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도 갈 수 있다. **63년생** 병도 약도 다 내 기가 나뉘었다. **75년생** 다툼이 생겨도 도와주는 이가 있어 다행. **87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타난다.

양

40년생 어깨를 으쓱할 일이 생긴다. **52년생** 가슴이 답답하니 한잔 술이 달래준다. **64년생**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는데 힘이 든다. **76년생** 지혜는 부족해도 근면성실로 극복해 나간다. **88년생**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지출을 하자.

양

41년생 마음이 혼란하니 한밤에 독서로 길을 찾아보자. **53년생**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고 앞뒤를 잘 살펴야 실수가 없다. **65년생**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는 않는다. **77년생** 갈 길이 멀어도 일단 시작. **89년생** 투자는 조언을 받아보라.

말

42년생 조금전일로 추억이 되는 과거이다. **54년생**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를 조심. **66년생** 실력으로 판단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성실함으로 해낸다. **78년생**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 **90년생**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자.

양

43년생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추니 일이 순조롭다. **55년생** 상황에 맞추어 장단점을 찾아보면 길이 열린다. **67년생** 환경을 탓하여 주저앉지 않도록. **79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91년생**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 것도 인생사.

원숭이

44년생 결과를 알 수 없는 게 인생사 누구를 탓하랴. **56년생** 깊은 밤은 새벽을 위한 준비. **68년생** 가치 있는 목표를 세우고 움직이는 순간 성공은 시작. **80년생** 동료와의 의견 대립이 있을 수. **92년생** 조상님 쌓은 공덕이 내게로 수해가.

닭

45년생 지치고 불행해도 가족을 생각하고 힘을 내자. **57년생** 은행적금을 들어보자. **69년생**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서는 성공을 할 수 없다. **81년생** 피곤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93년생** 남에게 준 손실은 부메랑처럼 나를 쫓아온다.

개

46년생 집안의 갈등이 생겨도 일단은 견뎌내라. **58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하라. **70년생** 금전 거래는 감정으로 하지 말아야. **82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94년생** 연인도 남이니 무리한 선을 넘지는 말아야.

돼지

47년생 협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과적인방법. **59년생** 인생은 각본 없는 드라마. **71년생** 천릿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우선 할 일을 찾자. **83년생** 무리하지 않으면 재물도 내편. **95년생** 위기를 돌파의 지혜는 과도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것.



김상회의四季

만도초월

어려운 시국이지만 태양은 늘 누구에게나 비추게 마련이듯 공평하니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혹시 만도초월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익숙한 단어는 아니지만 필자는 이 사자성어를 아낀다. “굽은 길에서 선두를 추월한다.” 라는 뜻이다. 곧장 뻗은 편한 길이 아니라 굽은 길, 저쪽이 보이진 않지만 그 굽은 길 편하지 않은 길을 위기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니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뜻으로 인생사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각오를 보여주는 말이다.

보통 회사경영이나 나라경영을 하는 지도자들이 난관을 극복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분투노력하여 상대나 어려움을 뛰어넘자는 뜻도 되겠다. 성황리에 막을 내린 카타르 월드컵을 보면서 내내 그 생각이 들었다. 전력이 비교가 아니게 약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과 열심을 다 하여 경기를 하는 각 나라의 대표 팀들도 모두 이와 비슷한 결연한 각오를 뒀었을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이자울 맥 빠진 증시 등등 팍팍한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서민들 역시 비슷한 심정이 아닐까 싶다. 계묘년은 물상적으로 보자면 ‘검은 토끼의 해’ 라고 풀 수 있겠다. 육십 간의지 40 번째로 계(癸)는 흑색, 묘(卯)는 토끼를 의미하니 그리 보는 것이다. 계묘는 천간과 지지의 속성상 습기가 많다. 습기가 많으면 곰팡이가 잘 피듯이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이 생긴다. 우울증이 생기거나 재발되기도 한다. 물론 사주명조는 전체적으로 보아야 하지만 일단 올 해 천간의 속성이 그렇다는 얘기가. 이러한 해우년이 누군가에게는 호운으로 작용하고 누군가에게는 과유불급이 되기도 할 것이다. 운수는 해 달 날 시가 분명히 정하여 있으니 잘 살펴서 피할 것은 피해 볼 일이다. 만도초월의 시작은 이러한 살림에서부터 시작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09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20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한 살 씩 어려워지는 ‘만 나이’ 6월부터 적용 최저시급 9620원… 병사월급 최대 48% 인상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내용의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또 6월부터는 기존 연나이, 한국식 세는 나이와 함께 혼용됐던 만나이로 연령 계산법이 통일된다. 최저시급이 5% 오르면서 월환산으로 처음 200만원을 넘고, 병장 기준 병사 월급도 100만원을 돌파한다. 2023년 계묘년에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계묘년부터는 식품 포장재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정부는 1월1일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됐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한다. 지난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자의 섭취가 가능한 소비기한이 표시되는 것이다. 단, 1년간 계도기간이 주어져 2023년에는 유통·소비기한이 모두 표시될 예정이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한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대다수 소비자는 이를 폐기의 시점으로 착각해 식품을 폐기해왔다. 이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환경 오염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통상 유통기한은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 지점으로 설정되며 소비기한은 식품 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80~90% 지점으로 설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공개한 식품 유형 10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가공두부는 기존 유통기한 7~40일에서 소비기한 8~64일로 늘어난다. 김치는 30일에서 35일로, 초콜릿가공품은 30일에서 51일로 늘어난다. 사업자는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올해 6월부터 연령이 ‘만(滿)나이’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나이 계산 방식이 같아지며 나이 기준 관련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만나이, 연나이, 한국식 세는 나이로 병행돼 사용돼 왔다. 예컨대 1977년 12월 31일생의

경우, 출생연도부터 1세로 시작해서 해마다 1을 더하는 방식인 한국식 세는 나이로는 46세다. 하지만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단순히 뺀 나이인 연나이로는 45세다. 연나이는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적용돼 왔다. 앞으로는 출생일을 0세로 놓고 생일마다 1을 더하는 만나이가 공식적인 나이 세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최저시급 9620원으로 인상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전년 대비 5.0% 인상된다. 월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으로 처음으로 최저시급만으로 세전 월급이 200만원이 넘는 의미가 있다. 최저시급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 채용 모든 사업장이며 만일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법은 임금 체불과 달리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다.

병사 월급 100만원 돌파

올해 일반 국군 병사 월급(병장 기준)이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는다. 여기에는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돼 병장의 경우 최대 130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내일준비적금은 다만 만기 시 이자 형태로 받는다.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병사 월급은 이병 60만원, 일병 68만원, 상병 80만원, 병장 100만원으로 최대 48% 인상된다. 향후 2025년까지 병장 기준 급여는 150만원 수준으로 오르고 자산 형성 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으로 늘려 최대 월급 205만원이 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1.2~6% 초



서울 지하철·버스요금 인상 예고

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버스가 이동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은 오는 4월 말을 기점으로 일제히 인상된다. 인상폭은 300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 경우 지하철의 기본요금은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이 된다. 마을버스 요금은 900원에서 1200원으로 치솟는다.

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버스가 이동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은 오는 4월 말을 기점으로 일제히 인상된다. 인상폭은 300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 경우 지하철의 기본요금은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이 된다. 마을버스 요금은 900원에서 1200원으로 치솟는다.

/뉴시스

과 누진세율인데 앞으로는 일반세율인 0.5~2.7%로 과세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되는 것이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부담도 현행 최고 6%에서 5%로 감소한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른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은 9억원 이하이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버버리 연상 ‘체크무늬 교복’ 퇴출

전국 200여 곳 학교에서 교복 디자인으로 이용 중인 ‘체크무늬’가 졸업생들의 추억으로 남게 됐다. 베이지색 바탕에 굵은 검은 선과 흰 선, 가는 빨간 선이 교차하는 체크무늬가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를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버버리는 지난 몇 년 간 자사의 시그니처 패턴과 비슷한 체크무늬를 사용 중인 국내 일부 중·고교 교복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지난 5월 버버리 측과 협의를 거쳐 해당 체크무늬를 교복에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50여 곳, 경북 4곳, 대구 7곳, 강원도 22곳 등 전국 200여 곳 중·고교

우회전 전용 신호등

지난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춘 다음 출발하도록 법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1월 23일부터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된다. 이에 따라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신호로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운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용수·신원선 기자 hys@metroseoul.co.kr



[라이프]
편의점
이종업계 컬래버로
고객 발길 잡는다
L1

metro®

Life

[라이프]
운세보고 경품까지
유통업계
신년이벤트 '붐물'
L3



서울 덮친 새로운 형태의 '대형재난' 진화된 대응체제로 예측·예방해야

퍼스트무버의 과제

한국이 패스트팔로워(신규 정책을 빠르게 쫓아가는 전략을 취하는 국가)에서 퍼스트 무버(새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자)로 국가적 전략이 전환되면서 인구 천만의 도시, 수도 서울에도 선진국의 모범 사례를 참고해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재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여름 서울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초대형 물난리가 났다. 지난 10월 29일에는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처음 맞이하는 핼러윈데이에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약 160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압사 참사가 일어났다. 메트로신문은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신종 대형 재난 관련 서울시의 예방 대책을 점검해 본다.

기후변화발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예방책은?

80년 만의 기록적 폭우에 초대형 물난리
8명 사망, 2만76건 시설 피해 발생해
1.5조 투입,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

지난해 8월 서울에는 시간당 최대 141.5mm의 폭우가 쏟아졌다. 동작구의 8월8~9일 누적 강수량은 515mm에 달했다. 해당 기간 서초구에는 480.5mm, 관악구 463.5mm, 강남구 439.5mm, 구로구 410mm의 비가 각각 내렸다.

당시 8명이 사망하고 2만76건의 시설 피해가 났다. 재산 피해액은 683억원에 이른다. 이외에 하천 범람 1건(도림천), 대형 건축물 지하 침수 21개소, 지하철 역사 침수 4곳, 지하차도 침수 16개소, 주택사면 및 담장파손 59건, 이재민·대피자가 5632명 발생하는 피해도 있었다.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는 "방재시설 확충, 24시간 모니터링 및 실시간 대응체계 마련으로 하천사고 등을 예방했으나 이상기후에 따른 폭우 발생으로 대규모 침수피해가 나면서 대응 대책의 한계가 노출됐다"고 평가했다.

서울의 방재성능 목표는 시간당 95mm의 강우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기후변화로 시간당 14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져 방재시설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 서면서 피해가 일파만파 커진 것이다. 이후 시는 관내 모든 방재시설이 시간당 100~110mm의 폭우를 감당할 수 있도록 방재성능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시 치수안전과는 "이상기후에 따라 강우, 계측 데이터 등 각종 자료 분석을 통한 사전 통제, 예측 대응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이러한 대응 체계가 미흡했다"면서 "반지하 주택, 저지대 도로, 지하 주차장 같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세부 대책 계획도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시는 ▲침수 우려 지역에 자율방재단과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협력 거버넌스' 구축 ▲서울시내 일반도로 침수 대비 '도로통제 매뉴얼' 마련 ▲수해 발생 시 서울시와 자치구 재난대책본부간 중간자 역할 수행 전담 인력 '현장지원관' 파견 ▲대형건물 지하공간 침수 방지 및 신속 배수 위한 중형 양수기 구매·배치 ▲반지하에 역류방지시설, 물막이판 같은 침수방지시설 확충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이상폭우 대비 풍수해 종합안전대책' 시행에 있어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 총 1조5000억의 사업비가 드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 프로젝트다. 시는 1단계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강남역·도림천·광화문 일대에, 2단계로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사당역·한강로·길동 일대에 대심도 배수터널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하수관 확장은 공사비보다 많은 보상비·지장물 이설비가 필요하고 교통을 전면 통제해 시민 불편을 야기하며, 빗물저류조 설치의 경우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분산 조성된 저류조를 유지 관리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도시 지역의 지하 40~50m 깊이에 큰 물길을 만드는 대심도 배수터널이 공공의 편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정말로 수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 걸까. 시는 빗물배수터널을 이미 구축한 신월 지역이 지난 여름 폭우 때 피해가 작았다는 것을 시설 설치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월8일 해당 지역엔 시간당 59.5mm, 일 강수량 164.5mm로 비가 적게 내려 신월 배수터널의 효과를 입증했다.

고보진 어렵다. 이에 대해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신월시장이 있는 지역은 비가 30~40mm만 와도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이다. 이번엔 비가 시간당 약 60mm가 왔는데도 피해가 안 난 거는 빗물배수터널의 효과가 나름 컸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1년 강남역, 동작구 신대방역을 포함 서울 전역 7곳에 빗물배수터널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사용 빈도가 적다는 이유로 실효성 논란이 일어 신월 지역을 제외한 6곳은 건설 계획이 무산됐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에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B/C(비용 대 편익: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 있음) 분석을 하도록 돼 있지만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의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 관련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바로 기공에 들어가게 된다"고 답변했다.

매뉴얼 없는 사고, 대응책은?

3년만에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에 인파 몰려
사상자 354명 역대 최악 압사사고 발생
인파관리·재난대응팀 신설, 대응책 마련

지난해 10월 29일에는 용산구 이태원에서 역대 최악의 압사 사고가 일어났다. 3년 만의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을 맞아 코로나 19 전보다 30% 많은 13만명의 인파가 이태원에 몰려 해밀턴 호텔 서쪽 골목길에서 158명이 숨지고 19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태원 압사 사고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사고로 기록됐다.

시는 이 같은 압사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난 11월 28일부터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에 인파관리팀을 신설·운영하기 시작했다. 해당 조직은 ▲다중인파 밀집지역 분석 및 평가 ▲행사·축제 현황 관리와 안전대책 수립 ▲인파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임무를 맡는다.

서준원 서울시 인파관리팀장은 "연말연시 인파가 밀집되는 지역을 총괄해 안전관리대책을 세우고 현장 점검을 나가 불법 주정차, 적치물 등을 처리했다"면서 "당장 보식과 타종행사와 해맞이 축제 등을 행치고 새해부터 인파관리 중장기계획 수립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11월 인파관리팀과 함께 재난대응팀도 새롭게 만들었다. 재난대응팀은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총괄 관리 ▲재난 관련 현안 사항 처리 ▲서울시 위기관리 매뉴얼 총괄 관리 ▲재난 발생 때 현장상황 관리 및 보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총괄 관리 ▲위기관리 매뉴얼 훈련 시행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매뉴얼이 없는 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박정현 서울시 재난대응팀장은 "어떤 재난이든 간에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과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답변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① 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 작년 8월 8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일대 도로가 침수돼 있다.
② 작년 8월9일 새벽 서울 이수역 인근 남성사계시장 일대가 침수돼 물이 빠져나가자 수해를 입은 상인들이 집기 등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③ 작년 10월31일 오전 한 시민이 용산구 녹사평역 앞에 설치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에서 헌화하고 있다.
④ 작년 10월30일 핼러윈을 앞두고 열린 행사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35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 /김현정 기자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같이 해 보아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하고 싶던 일도
새로운 도전도

모두 해보는
새해가 되기를

LG가 응원합니다

